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박사학위논문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HANSUNG UNIVERSITY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지 정

HANSUNG
UNIVERSITY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oss-Validation of Digital Divide in Korea

- Focusing o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

HANSUNG UNIVERSITY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지 정

HANSUNG
UNIVERSITY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oss-Validation of Digital Divide in Korea

- Focusing o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지 정

HANSUNG
UNIVERSITY

김지정의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김 백 유 (인)

심 사 위 원 정 진 택 (인)

심 사 위 원 방 기 천 (인)

심 사 위 원 정 성 택 (인)

심 사 위 원 노 기 성 (인)

HANSUNG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정보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교차검증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김 지 정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디지털정보 격차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1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접근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은 부분적으로 가설 1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다.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접근은 유의미한 영향을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독립변수로 하여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에 영향력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주요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첫째,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이 정보 소외계층 유의미한 영향을 삶의 만족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의 3차원이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요인 예측에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의 3차원 역시 사회적 자본 요인에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이 삶의 만족 요인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모든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어】정보소외계층, 디지털사회자본, 디지털역량, 디지털활용,
삶의 만족도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 1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

II. 이론적 배경 ····· 4

2.1 디지털정보 격차 관련 선행 연구 ····· 4
2.1.1 디지털접근 관점 ····· 7
2.1.2 디지털역량 관점 ····· 13
2.1.3 디지털활용 관점 ····· 19
2.2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 ····· 29
2.3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 36
2.4 선행연구 시사점 ····· 43

III. 연구방법 ····· 46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46
3.2 분석방법 ····· 48

IV. 연구 결과 ····· 49

4.1 측정수단의 신뢰성 검증 ····· 49
4.2 응답자의 특성 ····· 49
4.3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위한 이원배치 분산분석 ····· 53
4.4 상관관계 분석 ····· 75
4.5 디지털정보 격차 교차검증 분석결과 ····· 78
4.6 가설검증 결과에 관한 논의 ····· 85

HANSUNG UNIVERSITY

결 론 ····· 89

5.1 연구 결과 요약 ····· 89

5.2 논의 및 시사점 ····· 90

참 고 문 헌 ····· 92

ABSTRACT ····· 121

HANSUNG UNIVERSITY

표 목 차

〈표2-1〉장애인 디지털접근 실증연구·····9
〈표2-2〉고령층 디지털접근 실증연구·····10
〈표2-3〉장애인 디지털역량 실증연구·····14
〈표2-4〉고령층 디지털역량 실증연구·····16
〈표2-5〉장애인 디지털활용 실증연구·····20
〈표2-6〉고령층 디지털활용 실증연구·····22
〈표2-7〉장애인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31
〈표2-8〉고령층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35
〈표2-9〉장애인 삶의 만족도 실증연구·····39
〈표2-10〉고령층 삶의 만족도 실증연구·····40
〈표2-11〉장애인 집단 디지털 정보격차 실증연구 ·····43
〈표2-12〉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실증연구 ·····44
〈표3-1〉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가설·····47
〈표3-2〉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 가설·····47
〈표3-3〉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가설·····47
〈표4-1〉 측정수단의 신뢰성 검증 ·····49
〈표4-2〉정보 소외계층의 빈도분석결과·····50
〈표4-3〉소득 군의 빈도분석결과·····50
〈표4-4〉가구 거주형태의 빈도분석결과·····51
〈표4-5〉최종학력의 빈도분석결과·····51
〈표4-6〉연령대의 빈도분석결과·····52
〈표4-7〉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52
〈표4-8〉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53
〈표4-9〉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사후검정·····54
〈표4-10〉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 평균 차이·····54
〈표4-11〉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 사후 검정·····55
〈표4-12〉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삶의만족 평균차이·····55

〈표4-13〉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사후 검증·····56
〈표4-14〉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57
〈표4-15〉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 검정 ·····57
〈표4-16〉소득에 따른 선행연구 교차검증·····59
〈표4-17〉정보 소외계층 가구거주형태에 따른 삶의만족도의 평균 차이·····60
〈표4-18〉정보 소외계층 가구거주형태에 따른 삶의만족도의 사후 검정·····61
〈표4-19〉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62
〈표4-20〉정보 소외계층 가구거주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 검정····63
〈표4-21〉가구 거주형태 선행연구 교차검증·····64
〈표4-22〉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평균 차이·····65
〈표4-23〉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 검정 ·····66
〈표4-24〉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자본의 평균 차이 ·····67
〈표4-25〉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 검정·····68
〈표4-26〉정보 소외계층과 학력별 선행연구 교차검증·····69
〈표4-27〉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삶의만족도 평균 차이·····70
〈표4-28〉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 검정 ·····71
〈표4-29〉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자본 평균 차이 ·····72
〈표4-30〉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 검정·····73
〈표4-31〉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선행연구 교차검증 ·····74
〈표4-32〉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관계·····75
〈표4-33〉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 간의 관계76
〈표4-34〉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78
〈표4-35〉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디지털정보 격차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80
〈표4-36〉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디지털정보 격차의 차이 사후검정·····81
〈표4-37〉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의 회귀분석 결과·····83
〈표4-38〉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편 상관관계 분석·····84

그 림 목 차

〈그림2-1〉장애인 디지털접근 실증연구·····7
〈그림2-2〉고령층 디지털접근 실증연구·····10
〈그림2-3〉장애인 디지털역량 실증연구·····13
〈그림2-4〉고령층 디지털역량 실증연구·····16
〈그림2-5〉장애인 디지털활용 실증연구·····19
〈그림2-6〉고령층 디지털활용 실증연구·····22
〈그림2-7〉장애인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31
〈그림2-8〉고령층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34
〈그림2-9〉장애인과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연구결과 비교·····45
〈그림3-1〉연구모형·····46
〈그림4-1〉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56
〈그림4-2〉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58
〈그림4-3〉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61
〈그림4-4〉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별 사회적 자본의 교차검증 ·····63
〈그림4-5〉정보 소외계층과 학력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66
〈그림4-6〉정보 소외계층과 학력별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68
〈그림4-7〉정보 소외계층과 연령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71
〈그림4-8〉정보 소외계층과 연령별 사회적자본 교차검증·····73
〈그림4-9〉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교차검증 결과·····85
〈그림4-10〉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 결과·····86
〈그림4-11〉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교차검증 결과·····88

HANSUNG
UNIVERSITY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첨단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제 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디지털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개인, 가정, 기업 또는 지역 간에 접근, 기술, 사용의 격차를 말한다. 이러한 격차는 소득, 교육, 연령,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디지털 불평등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많은 서비스, 리소스, 기회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접근성이나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며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디지털 혁명에 완전히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보 소외계층 인구는 디지털 불평등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룹에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농어촌 및 이민자 및 북한 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불평등이 삶의 질에 나타내는 영향과 정도를 이해하고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 소외계층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 집단에 집중함으로써 이 집단이 직면한 특정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디지털 불평등과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표적화된 개입을 개발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불평등이 삶의 질에 나타내는 부정적인 영향을 잠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의미

하며, 이는 정보, 지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개인의 신념, 인식, 동기를 포괄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고,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을 위해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소속감과 사회적 지원을 촉진하여 디지털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불평등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는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학습과 기술 개발의 기회를 모색하며, 초기 접근 수준이나 기술과 관계없이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세계를 스트레스나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고 유익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웰빙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디지털 불평등과 삶의 질에서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한국의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동 매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디지털 태도, 디지털 불평등, 삶의 질 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함으로써 디지털 격차의 바탕을 이루는 복합적인 역학관계와 디지털 격차가 정보 소외계층에 나타내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정보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를 조명하고 디지털 포용성, 사회적 자본,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개입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이러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 격차가 정보 소외계층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에 미치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면 어떠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높이고,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 요소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가 디지털정보 격차에 영향을 받는 정보 소외계층 어느 분야를 지원해야 삶의 만족 및 사회적 자본을 향상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에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개선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저해요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 향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보 격차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모형과 이론적 자원을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 고찰을 통해 추출한 디지털정보 격차 영향요인을 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별로 교차검증을 시행하였다.

셋째,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자료 데이터를 정보 소외계층별 교차검증을 시행하고 삶의 만족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디지털정보 격차 관련 최근 연구와 검증할 연구모형 도출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경험적 연구를 분석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정보 격차의 정의와 하위요소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 디지털정보 격차는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디지털정보 격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정보 격차의 정의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논의한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관련된 경험적 논문들을 검토한 후 삶의 만족과 디지털정보 격차에 관련 영향요인 간에 분석의 틀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틀의 구성요소(하위요인)와 디지털정보 격차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후 이 연구에서 투입될 변수들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장에서 이론적 모델의 근거와 배경으로 제시할 것이다.

2.1 디지털정보 격차 관련 선행연구

디지털 정보격차는 개인, 가정, 기업 또는 지역 간에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 기술 및 사용의 격차를 의미한다. (DiMaggio & Hargittai, 2001)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

a. 접근성: 디지털 기기, 인터넷 연결, ICT 인프라의 가용성 및 경제성.
b.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및 역량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c. 활용: 정보 탐색,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

디지털정보 격차의 원인은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Norris, 2001; Van Dijk, 2005)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은 개인이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영향력이 크다. (DiMaggio & Hargittai, 2001). 또한, 나이와 지리적 위치도 디지털정보 격차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노년층과 시골 또는 외딴 지역 거주자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기술 개발에 더 큰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Helsper & Reisdorf, 2017)

디지털 정보격차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Robinson et al. 2015) 더 많은 서비스, 자원, 기회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접근성이나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Van Deursen & Van Dijk, 2014) 디지털 정보격차는 정보, 소셜 네트워크, 교육 자원, 고용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여 사회적 자본 감소, 시민 참여 감소,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Hargittai & Hinnant, 2008; Mossberger et al. 2008)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시골이나 외딴 지역 거주자 등 정보 소외계층은 특히 디지털정보 격차에 취약하다. (Helsper & Reisdorf, 2017) 이러한 그룹은 재정적 제약, 교육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부적절한 인프라 등 디지털 포용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고,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 세계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Gilbert et al. 2018)

디지털 정보격차는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근성, 기술, 사용 능력의 격차는 의료,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필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용, 창업과 같은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 (Helsper & Reisdorf, 2017)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는 소외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 시민 참여 감소, 사회적 자본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Mossberger et al. 2008; Robinson et al., 2015)

결론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에 관한 문헌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원인, 결과, 차원을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가 사회 및 경제 발전과 개인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헌은 디지털정보 격차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의 취약성과 삶의 질에 나타내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가 국내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 나타내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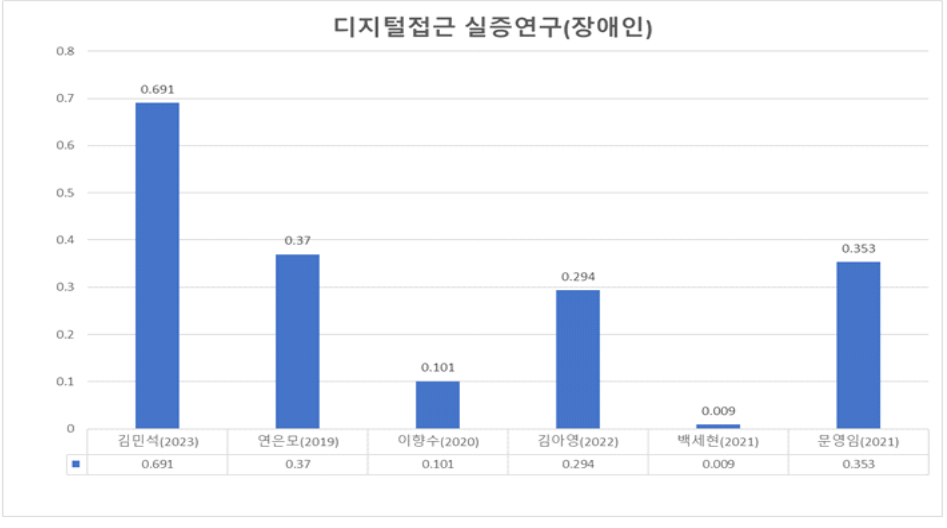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2.1.1 디지털접근 관점

디지털접근 관련 연구들은 디지털 접근성이 큰 영향을 한국인의 삶의 질에 미치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영기(2003)는 국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 성공하여 70% 이상의 가구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우준(2020)은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일반 국민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은영(2014)은 국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비교한 결과, 장애, 성별, 연령, 학력 등이 인터넷 이용 및 생산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양경욱(2001)은 국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디지털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접근성이 큰 영향을 삶의 질에 미치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와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장애인 집단

〈그림 2-1〉 장애인 디지털접근 실증연구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접근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1〉과 같다. 장애인의 디지털접근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민석(2023), 연은모(2019), 이향수(2020), 김아영(2022), 백세현(2021), 문영임(2021) 등의 연구가 있다.

김민석(2023)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접근이 디지털역량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디지털정보접근과 디지털역량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고 PC 보유가 69.1% 스마트폰 보유가 30.2% 디지털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은모(2019:640)는 디지털 정보화 역량과 활용수준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과 상관없이 디지털 정보화 역량과 활용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향수(2018:26) 논문은 정책 활동 만족도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사이에 관계가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두 요인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정책 활동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정책 결정 활동에 기여가 가능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아영(2022:24)은 장애가 있는 20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각, 청각 및 신체장애가 전자 정부 참여에 영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추가로, 장애 유형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전자 정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에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장애 유형이 전자 정부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발견했다.

백세현(2021:101)은 더 높은 수준의 정보가 더 큰 사회적 자본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정보가 사회적 자본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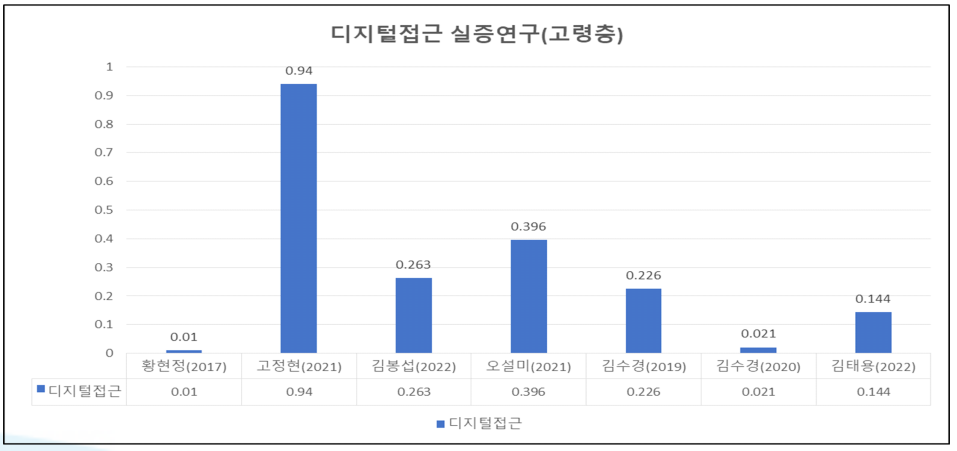
문영임(2021:132)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심리적, 장애 관련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역량, 디지털 기기 시민역량, 사회적 지지 변인, 디지털 기기와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 등 심리적 요인, 인구학적·사회학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장애인 디지털접근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김민석(2023)	● 디지털정보접근과 디지털역량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PC보유가 69.1% 스마트폰 보유가 30.2% 디지털역량에 영향
연은모(2019)	● 디지털 정보화 능력과 접근성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냄
이향수(2018)	● 정책 활동 만족도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 제안
김아영(2022)	● 장애 유형이 전자 정부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발견
백세현(2021)	● 정보화 정도가 지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positive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 또한, 신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보화 정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
문영임(2021)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디지털 기술과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문해력에 이바지하는 요인과 그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 대해 논의

2) 고령층 집단

〈그림 2-2〉 고령층 디지털접근 실증연구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접근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2〉과 같다. 고령층의 디지털접근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황현정(2017), 고정현(2021), 김봉섭(2022), 오설미(2021), 김수경(2019,2020), 김태용(2022) 등의 연구가 있다.

〈표2-2〉 고령층 디지털접근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황현정(2017)	●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노인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
고정현(2021)	● 컴퓨터 사용 능력 수준과 노인의 학습 동기가 디지털 응원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중요한 요인
김봉섭(2022)	●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 자본에 영향
오설미(2021)	● 노인의 신기술 이용 의도에 디지털정보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 효과는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사용성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
김수경(2019)	●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효과는 온라인 소셜커머스 참여 및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부분 매개 효과
김수경(2020)	● 모바일 장치 기능이 모바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고, 이는 다시 이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김태용(2022)	●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이 covid-19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covid-19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의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은 완전 매개 효과

황현정(2017:377)은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노인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혼자 사는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으므로 디지털 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현(2021:37)은 디지털 격차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기술의 일상적 사용 중심에서 정보의 질적 사용 격차,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격차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 개인이 디지털 후원자를 활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노인의 학습 동기와 컴퓨터 사용 능력 수준이 디지털 응원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봉섭(2022:117)은 노인 개인의 성취 자본(즉, 교육, 직업 및 소득)과 그들의 디지털 자본(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달성 자본이 더 큰 디지털 자본 및 디지털 장치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저자는 노인 개인의 디지털 자본을 늘리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설미(2021:158)는 디지털정보의 수준이 노인의 신기술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활용성과를 매개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활용성과가 높아지며, 이는 다시 노인의 신기술 사용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경(2019:31)은 온라인 사회 참여와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년과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한국의 중년과 노년 참가자 312명을 표본으로 수집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효과는 온라인 소셜커머스 참여 및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온라인 사회 참여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김수경(2020:31)은 중장년층의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년과 노년층의 모바일 장치 기능, 모바일 사회 참여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 장치 기능이 모바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고, 이는 다시 이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모바일 장치 기술을 향상하고 모바일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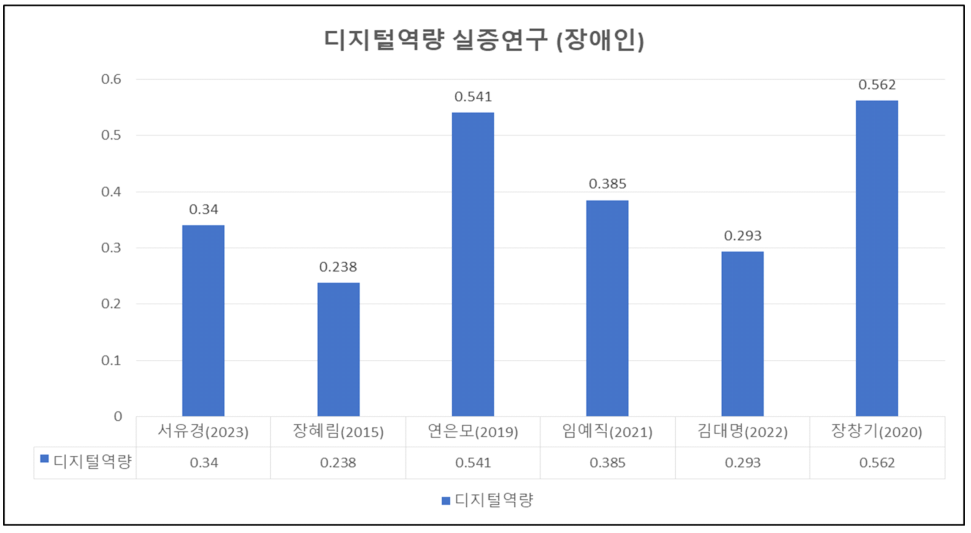
김태용(2022)은 중고령자의 Covid-19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이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가구 유형이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중고령자의 Covid-19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과 가구 유형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디지털역량 관점

디지털역량 관련 연구들은 디지털 능력이 한국, 특히 노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정민(2009)는 한국의 높은 디지털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물질적 삶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배성만(2022)는 노년층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스마트폰 사용 동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천(2020)은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일반인보다 더 심각하며, 고령층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 능력과 정보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은영(2014)는 장애, 연령, 학력이 인터넷 사용 및 생산 문해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터넷 생산 문해력에서 장애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1) 장애인 집단

〈그림 2-3〉 장애인 디지털역량 실증연구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역량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3〉과 같다. 장애인의 디지털역량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서유경(2023), 장혜림(2015), 연은모(2019), 임예직(2021), 김대명(2022), 장창기(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표2-3〉 장애인 디지털역량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서유경(2023)	● 디지털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디지털 역량이 34% 사회적 지지가 58% 삶의 만족에 영향
장혜림(2015)	●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만족도가 이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인터넷 이용만족도가 정보 격차에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학력이 발달장애인 부모가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
연은모(2019)	● 긍정적으로 디지털 정보화 능력과 접근성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임예직(2021)	●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
김대명(2022)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과 기술활용능력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장창기(2020)	● 중증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기술 역량과 인터넷 이용 간의 관계 중요성을 확인

서유경(2023)은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에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디지털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디지털역량이 34% 사회적 지지가 58% 삶의 만족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림(2015: 16)은 국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209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아동이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조사하고 부모의 인터넷 사용 능력과 만족도가 이러한 관계에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가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만족도가 이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인터넷 이용만족도가 정보격차에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은모(2019:640)는 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여러 그룹 간의 변수 간의 관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중 그룹 분석한 결과 디지털 정보화 능력과 접근성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도 디지털 정보화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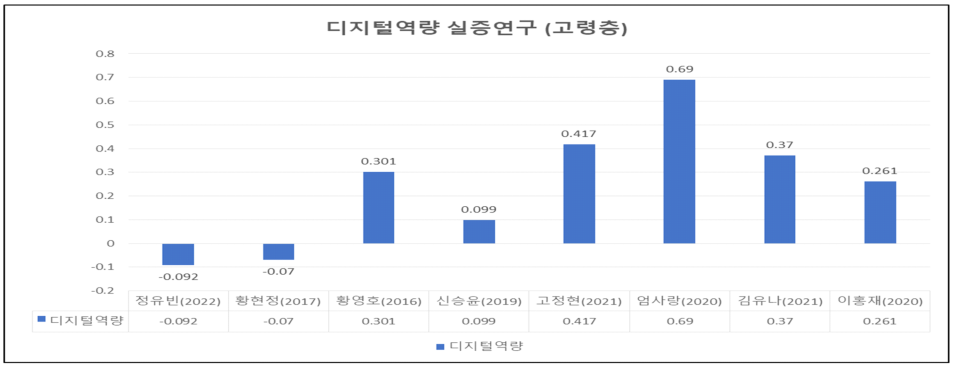
임예직(2021:255)은 신기술 수용 능력의 매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사용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대명(2022:89)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와 같은 기술사용 능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술활용능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창기(2020:70)는 온라인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격차가 중증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에 나타내는 영향을 탐구한 결과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비장애인보다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작으며 정보격차가 이러한 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2) 고령층 집단

〈그림 2-4〉 고령층 디지털역량 실증연구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역량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4〉와 같다. 고령층의 디지털역량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정유빈(2022), 황현정(2017), 황영호(2016), 신승윤(2019), 고정현(2021), 엄사랑(2020), 김유나(2021), 이홍재(2020) 등의 연구가 있다.

〈표2-4〉 고령층 디지털역량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정유빈(2022)	● 사회적 요인에서는 사회 참여가 높으면 높게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요인에서는 디지털 이용태도 와 디지털 이용성과가 높을 경우, 디지털 이용능력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현정(2017)	●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노인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
황영호(2016)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IT 교육, 정보서비스 제공, IT 관련 정책 수요 조사, 개발·보급 등 재능기부, IT 소통과 나눔을 위한 봉사활동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서 노인 인구의 사회적 및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인 인구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신승윤(2019)	● 노인 개인의 모바일 리터러시와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과 모바일 리터러시와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
고정현(2021)	● 노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용 유형이 서로 다른 인구 통계 및 건강 특성과 연관
엄사랑(2020)	●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
김유나(2021)	● 연구는 연령, 교육, 수입, 건강, 사회적 지원, 기술에 대한 이전 경험과 같은 요소가 노인의 디지털 용량 및 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
이홍재(2020)	●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positive한 영향을 정보의 질적 이용에 미치고, 이는 다시 기기 이용성과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정유빈 (202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요인에서는 디지털 이용태도와 디지털 이용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디지털 이용능력이 낮게 나타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현정(2017:377)은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 구성 유형에 따라 노인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배우자와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으므로 디지털 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호(2016:13)는 정보격차와 노인의 인터넷 기반 사회경제적 참여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노인 인구 사이에 상당한 디지털 격차가 있으며 젊은 세대에 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격차는 연령, 교육 수준, 소득 및 지리적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승윤(2019:254)은 노인의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과 모바일 기기 사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나타내는 영향 가운데 중요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년층에서는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이 모바일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4세 이하 일반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 노인 개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정현(2021:21)은 만 65세 이상 노인 40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후원자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참가자를 비사용자, 기본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중심 사용자, 건강 중심 사용자의 네 가지 사용

유형으로 분류했다. 참가자의 대다수가 기본 사용자였으며 의사소통 및 건강에 중점을 둔 사용자가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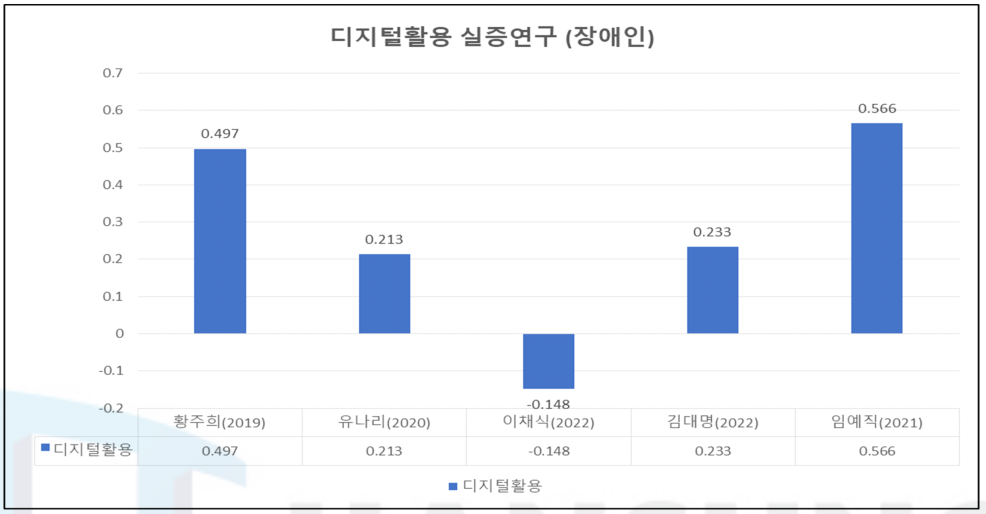
엄사랑(2020:49)은 정보 능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정보 능력, 정보활동, 디지털 기기 성능,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나(2021:94)는 노인의 디지털 기술과 사용에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연령, 교육, 수입, 건강, 사회적 지원, 기술에 대한 이전 경험과 같은 요소가 노인의 디지털 용량 및 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교육과 소득은 디지털역량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지만 건강과 사회적 지원은 디지털 활용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재(2020:231)는 노인들의 사회관계망 영역에서의 정보 활용도는 경제 활동 참여보다 정보 생산 및 공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positive한 영향을 정보의 질적 이용에 미치고 이는 다시 기기 이용성과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성은 PC와 모바일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1.3 디지털 활용 관점

〈그림2-5〉 장애인 디지털활용 실증연구



디지털 활용 관련 연구들은 디지털 활용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종민(2009)은 한국의 생활양식이 현대화되고 디지털화되었음에도 시민들은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물질적 삶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백지원(2022)은 한국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여전히 낮으며, 노화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변화로 인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만(2022)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지만, 여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2021)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가치가 건강관리 행동, e-헬스 리터러시, 지속적 사용 의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들은 디지털 활용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요인이 이러한 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 장애인 집단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 활용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2-5〉와 같다.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황주희(2019), 유나리(2020), 이채식(2022), 김대명(2022), 임예직(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표2-5〉 장애인 디지털활용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황주희(2019)	● 정보 활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장애인의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유나리(2020)	●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positive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시사
이채식(2022)	● 장애인이 자발적인 인터넷 이용 없이 인터넷 이용 의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 경제 활동 여부,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
김대명(2022)	● 기술활용능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
임예직(2021)	●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

황주희 (2019:62)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디지털 기술에 더 잘 접근하고 사용에 능숙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기술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유나리(2020:116)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보역량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정보 능력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에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보역량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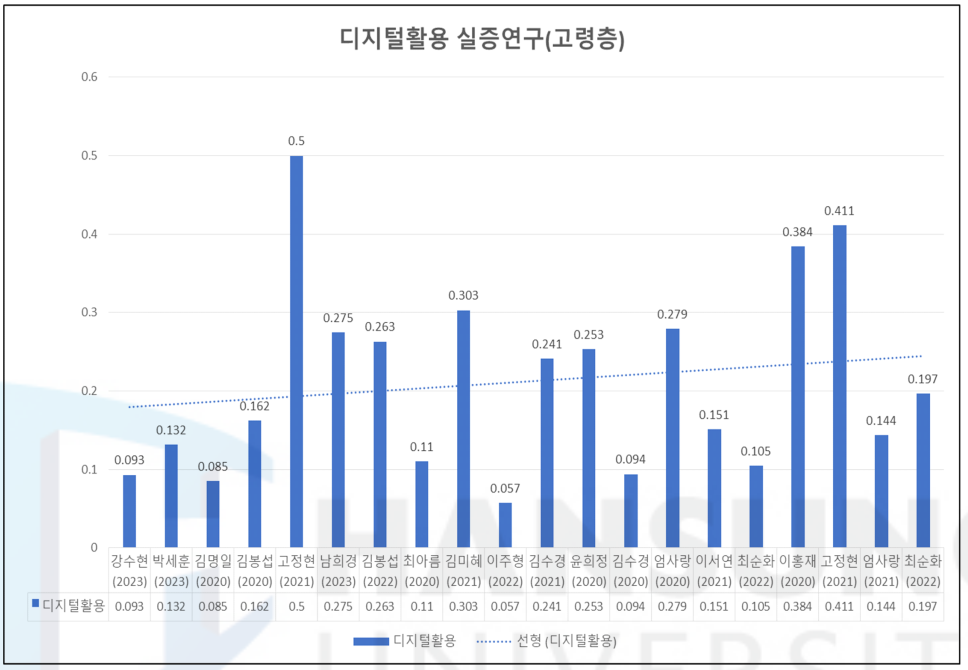
이채식(2022:226)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디지털 기술 이용과 여가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저소득 참가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기술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명(2022:89)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와 같은 기술사용 능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술활용능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예직(2021:255)은 신기술 수용 능력의 매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사용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고령층 집단

〈그림 2-6〉 고령층 디지털활용 실증연구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디지털 활용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2-6〉과 같다.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강수현(2023), 박세훈(2023), 김명일(2020), 김봉섭(2020), 고정현(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표2-6〉 고령층 디지털활용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강수현(2023)	● 지역에 따라 소비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두드러져,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인식과 소비생활 수준 관련 변인 중 디지털정보 이해·활용 역량 수준과 디지털 소비 경험은 고령자가 예비 고령자보다 낮은 경향
박세훈(2023)	●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활동이 고령층과 전체 연령층에서 디지털 이용성과에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전체 연령층의 경우 PC와 모바일 매체별 차이가 없는 반면, 고령층은 모바일의 사회적 관계 서비스와 정보생산공유 등 2개 활동이 이용성과에 영향.
김명일(2020)	● 디지털정보 활용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김봉섭(2020)	● 연령, 교육, 소득과 같은 요인이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나타내는 영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소득이 높은 개인이 디지털 응원자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음
고정현(2021)	● 노인의 학습 동기와 컴퓨터 사용 능력 수준이 디지털 응원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중요한 요인
남희경(2023)	●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김봉섭(2022)	●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 자본에 영향
최아름(2020)	● 중장년층의 디지털정보 역량 향상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용 등 디지털 포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가 중장년층의 디지털 정보 이용 및 만족도에 영향
김미혜(2021)	● 가구 유형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가구 유형이 나타내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디지털역량에 의해 매개되는 것
이주형(2022)	● COVID-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고 웰빙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김수경(2021)	●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윤희정(2020)	● 중장년층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면서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다중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과 연령은 디지털 정보화 활용도 및 생활만족도와 positive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독신 상태는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
김수경(2020)	● 실질적, 정책적 함의는 중장년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음
엄사랑(2020)	●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이서연(2021)	● 디지털 리터러시를 촉진하고 소셜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최순화(2022)	● 취약한 노인들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고령자와 저소득 노인일수록 디지털정보 사용을 늘릴 가능성이 작았지만, 신기술에 더 많이 참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인터넷 사용 수준과 디지털 시민의식 능력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용.
이홍재(2020)	●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positive한 영향을 정보의 질적 이용에 미치고, 이는 다시 기기 이용성과 및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positive한 영향 관계
고정현(2021)	● 노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용 유형이 서로 다른 인구 통계 및 건강 특성과 연관될 수 있음
엄사랑(2021)	● 중장년층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사회적 지원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최순화(2022)	● 노인 여성의 디지털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일 수 있다고 결론, 지식이나 기술 부족과 같은 기술사용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

강수현(2023)은 지역에 따른 소비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인식 및 소비생활 수준 관련 변인 중 디지털정보 이해·활용 역량 수준과 디지털 소비 경험은 고령자가 예비 고령자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박세훈(2023)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활동이 고령층과 전체 연령층에서 디지털 이용성과에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전체 연령층의 경우 PC와 모바일 매체별 차이가 없는 반면, 고령층은 모바일의 사회적 관계 서비스와 정보생산공유 등 2개 활동이 이용성과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일(2020:66)은 50~80세의 참가자 33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원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한 결과, 디지털정보 활용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쇼핑, 엔터테인먼트에 디지털정보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고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섭(2020:46)은 디지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자원에 접근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영향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사용 때문에 조정되었다. 이는 디지털 응원자가 있으면 노인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향상하고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성을 고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정현(2021:37)은 한국인 노인 37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디지털 동기가 노인의 디지털 이용에 나타내는 영향을 탐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은 디지털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고, 이는 다시 디지털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디지털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디지털 이용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남희경(2023:45)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나타내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활동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노인에게 건강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김봉섭(2022:117)은 노인 개인의 성취 자본(즉, 교육, 직업 및 소득)과 그들의 디지털 자본(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달성 자본이 더 큰 디지털 자본 및 디지털 장치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최아름 (2020:17)은 지식정보사회가 중·장년층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건강 상태와 같은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혜택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 미래 기술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삶의 전망과 더 큰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미혜(2021:76)는 중년이나 노년층의 가족구조, 디지털 용량 및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디지털 용량이 가족구조와 전자정부 사용 사이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지지적 가족구조를 가진 개인일수록 디지털역량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커진다.

이 연구는 중년 또는 노년층의 디지털역량을 촉진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촉진하는 데 있어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형(2022:50)은 한국 중장년층의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사용 변화와 일상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 증가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 증가는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어져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경(2019:31)은 온라인 사회 참여와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년 또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한국의 중년 또는 노년 참가자 312명을 표본으로 수집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효과는 온라인 소셜 참여 및 온라인 네트 워크 활동으로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보여주고 있다.

윤희정(2020:95)은 디지털정보 사용,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디지털정보를 자주 사용하는 개인일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는 디지털정보 이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김수경(2020:50)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동기, 태도 및 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동기와 태도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중장년층의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기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동기는 태도를 통해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엄사랑(2020:49)은 정보 능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정보 능력, 정보활동, 디지털 기기 성능,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연(2021:318)은 디지털역량이 노인의 삶의 질에 나타내는 영향과 이를 매개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역할을 65세 이상의 215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소셜 네트워크 및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의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더 크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더 높은 삶의 질과 연결되며, 이러한 효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최순화(2022: 988)는 한국의 2,04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염병으로 인해 의료,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앱과 같은 디지털정보 소스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요인이 디지털정보 활용 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재(2020:231)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노인이 PC를 사용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고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또한 소득, 교육 및 건강 상태를 포함하여 노인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에 이바지하는 몇 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은 기술 액세스 및 사용 수준이 낮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은 모바일 장치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현(2021:21)은 만 65세 이상 노인 40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후원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용 유형이 서로 다른 인구 통계 및 건강 특성과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엄사랑(2021:9)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대인관계 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온라인 대인관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가교 구실을 한다.

최순화(2022:81)는 디지털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과 노인 여성의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디지털정보 활용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고양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고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고양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도 노인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보, 지원 및 기회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 (부르디외, 1986; 콜먼, 1988; 퍼트남, 2000) 이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a. 구조적 사회적 자본: 개인을 연결하고 자원의 교환을 촉진하는 소셜 네트워크, 조직 및 기관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유형적 측면(Lin, 2001).

b. 인지적 사회자본: 협력과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공유 가치,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무형적 측면(Putnam, 2000).

c. 유대적 사회적 자본: 가족, 친한 친구, 이웃과 같은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정서적 지원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강한 유대감(Putnam, 2000).

d. 사회적 자본 연결: 다양한 사회 집단에 걸쳐 개인을 연결하여 다양한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약한 유대 관계(Granovetter, 1973).

이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Hampton & Wellman, 2003; Williams, 2006)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고,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을 위해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Hargittai & Hsieh, 2013) 또한, 사회적 자본은 소속감과 사회적 지원을 촉진하여 디지털정보 격차에도 불구하고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 (Norris, 2004)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시골이나 외딴 지역 거주자 등 정보 소외계층은 소셜 네트워크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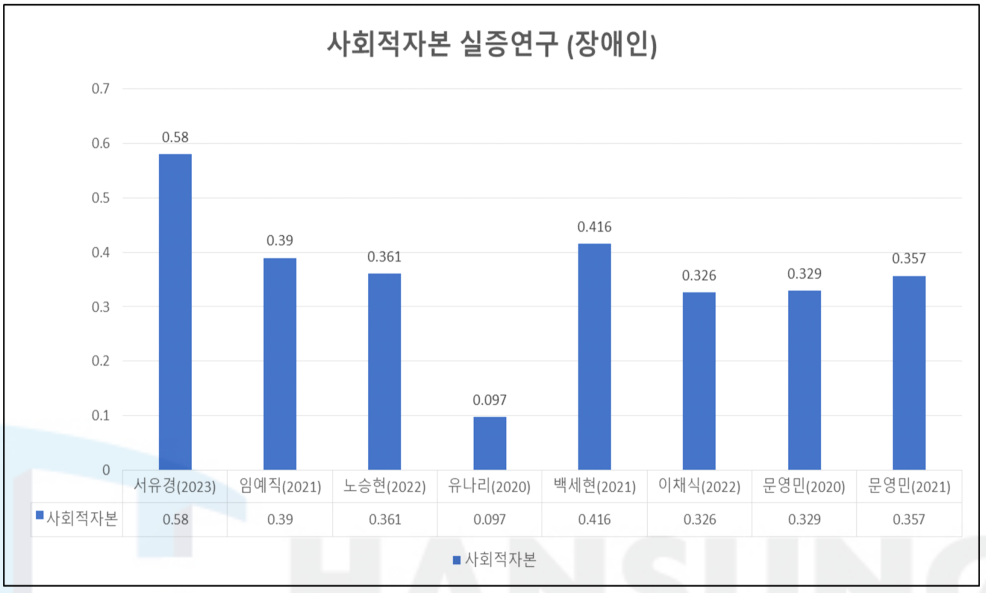
이 낮은 경우가 많다. (Portes, 1998) 디지털 정보격차는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정보에 액세스하고, 커뮤니티 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방해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Gilbert et al. 2018) 그러나 디지털 포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은 잠재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이러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Helsper & Reisdorf, 2017)

사회적 자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삶의 만족도, 사회적 응집력 등 다양한 웰빙 및 삶의 질 지표와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다. (Helliwell & Putnam, 2004; Kawachi et al. 2008)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자원 및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반적인 웰빙과 삶의 만족도에 이바지할 수 있다(Lin, 2001).

사회적 자본은 자원과 지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잠재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Hampton & Wellman, 2003; Williams, 2006) 사회적 자본이 높은 개인일수록 디지털정보 격차와 관련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사회적 고립, 시민 참여 감소,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과 같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작다. (Norris, 2004; Hargittai & Hsieh, 2013) 요약하자면, 사회적 자본에 관한 문헌은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웰빙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헌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역할, 특히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장애인 집단

〈그림 2-7〉 장애인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사회적 자본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2-7〉과 같다.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서유경(2023), 임예직(2021), 노승현(2022), 유나리(2020), 백세현(2021), 이채식(2022), 문영민(2020), 문영임(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표 2-7〉 장애인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서유경(2023)	● 디지털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디지털역량이 34% 사회적 지지가 58% 삶의 만족에 영향
임예직(2021)	●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
노승현(2022)	● 모바일 기기 사용은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를 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결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유나리(2020)	●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positive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부분적으로 중개됨을 시사
백세현(2021)	● 정보화 정도가 지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positive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 또한, 신체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와 정보화 정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시사
이채식(2022)	● 장애인이 자발적인 인터넷 이용 없이 인터넷 이용 의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 경제 활동 여부,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
문영민(2020)	●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컸다. 반면 사회적 자본은 비장애인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문영민(2021)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디지털 기술과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디지털 문해력에 이바지하는 요인과 그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 대해 논의

서유경(2023) 디지털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디지털역량이 34% 사회적 지지가 58% 삶의 만족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예직(2021:255)은 신기술 수용 능력의 매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사용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 구조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기술 수용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활용지각의 관계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신기술 수용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승현 (2022:70)은 신체장애가 있는 성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지원의 효과와 이러한 관계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의 중재 역할을 탐구한 결과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지원이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기기 사용은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를 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나리(2020:116)는 장애인의 정보역량,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정보 능력은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보역량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세현(2021:101)은 신체장애인의 정보 수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란 결과 더 높은 수준의 정보가 사회적 자본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들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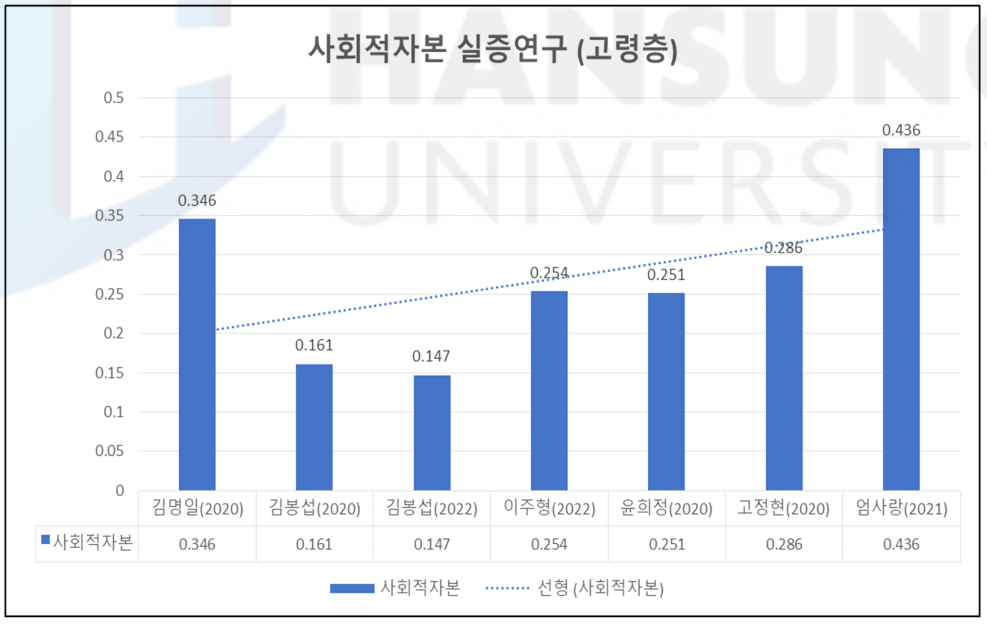
이채식(2022:226)은 비이용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의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룹(자발적 미사용)과 장애 관련 장벽으로 인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그룹(비자발적 미사용)의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인식된 유용성, 사용 용이성, 사회적 영향 및 자기효능감이 모두 두 그룹의 인터넷 사용 의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비자발적 비 이용 그룹이 물리적 접근 문제 및 보조 기술 부족과 같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장애 관련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영민(2020:223)은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4IR)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탐구한 결과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컸다. 반면 사회적 자본은 비장애인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임(2021:132)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심리적, 장애 관련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역량, 디지털 기기 시민역량, 사회적 지지 변인, 디지털 기기 또는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 등 심리적 요인, 인구학적·사회 학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령층 집단

〈그림 2-8〉 고령층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2-8〉과 같다.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명일(2020), 김봉섭(2022), 이주형(2022), 윤희정(2020), 고정현(2020), 엄사랑(2021) 등의 연구가 있다.

〈표 2-8〉 고령층 사회적 자본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김명일(2020)	● 디지털정보 활용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김봉섭(2020)	● 연령, 교육, 소득과 같은 요인이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나타내는 영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소득이 높은 개인이 디지털 응원자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김봉섭(2022)	● 노인의 성취자본과 디지털 기기 사용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 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 자본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이주형(2022)	● COVID-19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고 웰빙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윤희정(2020)	● 중장년층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면서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과 연령은 디지털 정보화 활용도 및 생활만족도와 positive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독신 상태는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
고정현(2020)	● 사회적 지원은 디지털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고, 이는 다시 디지털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엄사랑(2021)	● 중장년층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positive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사회적 지원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김명일(2020:66)은 50~80세의 참가자 33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원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 디지털정보 활용 유형이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쇼핑, 엔터테인먼트에 디지털정보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고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섭(2020:46)은 디지털 사용의 매개 효과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지지자가 노인 개인의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나타내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영향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사용 때문에 조정되었다. 또한, 연령, 교육, 소득과 같은 요인이 디지털 응원자가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나타내는 영

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소득이 높은 개인이 디지털 응원자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섭(2022:117)은 노인의 성취자본과 디지털 기기 사용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디지털 리터러시 및 교육 촉진,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주형(2022:50)은 한국 중장년층의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사용 변화와 일상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 증가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 증가는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어져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정(2020:95)은 디지털정보 사용,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디지털정보를 자주 사용하는 개인일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는 디지털정보 이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정현(2020:137)은 사회적 지지와 디지털 동기가 노인의 디지털 이용에 나타내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연구는 한국인 노인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 방 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원은 디지털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고, 이는 다시 디지털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디지털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디지털 이용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엄사랑(2021:9)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대인관계 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온라인 대인관계 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

HANSUNG UNIVERSITY

2.3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삶의 질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자원, 개인적 성취감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을 의미한다. (Felce & Perry, 1995; Diener 외., 1999)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관적 및 객관적 측정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a.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인의 자가 보고 평가(Diener, 1984).

b. 객관적 웰빙: 소득, 교육, 고용 및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의 생활 조건에 대한 지표(Nussbaum & Sen, 1993).

c. 사회적 웰빙: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도(Keyes, 1998).

디지털 정보격차는 정보, 자원,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inson et al. 2015; Helsper & Reisdorf, 2017)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악화시켜 접근성이나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개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1) 장애인 집단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농촌 또는 외딴 지역 거주자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은 디지털 정보격차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특히 취약하다. (Gilbert et al. 2018) 이러한 그룹은 디지털 포용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행복지수를 낮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Helsper & Reisdorf, 2017) 앞선

문헌 검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Hampton & Wellman, 2003; Helsper, 2012)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 지원,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웰빙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 (Helliwell & Putnam, 2004)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정보 격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게 해준다. (Helsper & Reisdorf, 2013)

문헌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태도는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디지털정보 격차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Helsper, 2012; Hampton & Wellman, 2003)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이 높고 디지털 태도가 긍정적인 개인은 디지털 자원에 접근하고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며 디지털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디지털정보 격차의 영향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이 낮고 디지털 태도가 부정적인 개인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디지털 기술사용을 꺼려 기존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정보 격차의 부정적인 결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장애인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삶의 만족도 관련 실증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2-9〉와 같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민석(2023), 이미아(2022) 등의 연구가 있다.

〈표 2-9〉 장애인 삶의 만족도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김민석(2023)	● 디지털정보접근이 디지털역량 나타내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디지털정보접근과 디지털역량 사이에 positive한 관계가 존재하고 PC 보유가 69.1% 스마트폰 보유가 30.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이미아(2022)	●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사용 패턴 및 디지털 기술을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장애 유형 및 기술사용 빈도가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나타냄

2) 고령층 집단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분야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표2-10〉과 같다.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김봉섭(2022), 최아름(2020), 김수경(2020), 오설미(2021), 임정훈(2020), 최순화(2022) 등의 연구가 있다.

〈표 2-10〉 고령층 삶의 만족도 실증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김봉섭(2022)	● 교육자본, 소득 자본, 사회적 자본, 감성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성취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디지털역량 자본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최아름(2020)	● 중장년층의 디지털정보 역량 향상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용 등 디지털 포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가 중장년층의 디지털정보 이용 및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김수경(2020)	● 모바일 장치 기능이 모바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고, 이는 다시 이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오설미(2021)	● 노인의 디지털정보 수준이 신기술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 효과는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사용성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
엄사랑(2020)	●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
임정훈(2020)	● 성별, 학력, 가구 유형, 월수입, 연령대가 베이비붐 세대와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영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노년층과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연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최순화(2022)	● 노인 여성의 디지털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에 고양된 영향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지식이나 기술 부족과 같은 기술사용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

김봉섭(2022:117)은 노인 개인의 성취 자본(즉, 교육, 직업 및 소득)과 그들의 디지털 자본(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달성 자본이 더 큰 디지털 자본 및 디지털 장치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최아름(2020:17)은 지식정보사회가 중·장년층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탐구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건강 상태와 같은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혜택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김수경(2020:31)은 중년 또는 노년층의 모바일 장치 기능, 모바일 사회 참여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 장치 기능이 모바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마치고, 이는 다시 이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인들이 모바일 장치 기술을 향상하고 모바일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설미(2021:158)은 디지털정보의 수준이 노인의 신기술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활용성과를 매개변수로 하여 조사한 결과 디지털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활용성과가 높아지며, 이는 다시 노인의 신기술 사용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사랑(2020:49)은 정보 능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정보 능력, 정보활동, 디지털 기기 성능,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와 정보활동이 정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 성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훈(2020:481)은 베이비붐 세대와 1946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의 두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및 건강 상태가 모두 노인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1946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았지만, 디지털 격차에 영

향을 나타내는 요인은 비슷했다. 두 그룹 모두 교육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소득과 건강 상태가 그 뒤를 이었다.

최순화(2022:81)는 디지털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과 노인 여성의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 디지털정보 활용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고양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고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고양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도 노인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SUNG UNIVERSITY

2.4 선행연구 시사점

위 실증연구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디지털정보 격차 실증분석의 대표적인 연구 경향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구성요소를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의 3가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가 삶을 만족도 또는 이용자의 이용 동기, 콘텐츠 활용, 만족도, 참여 의지,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지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디지털정보 격차 관련 실증적인 연구 경향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디지털정보 격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분석에 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추세는 다른 요인과 이러한 디지털정보 격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상호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체로 디지털정보 격차는 사회적 지지 또는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호교류나 행동이나 인식을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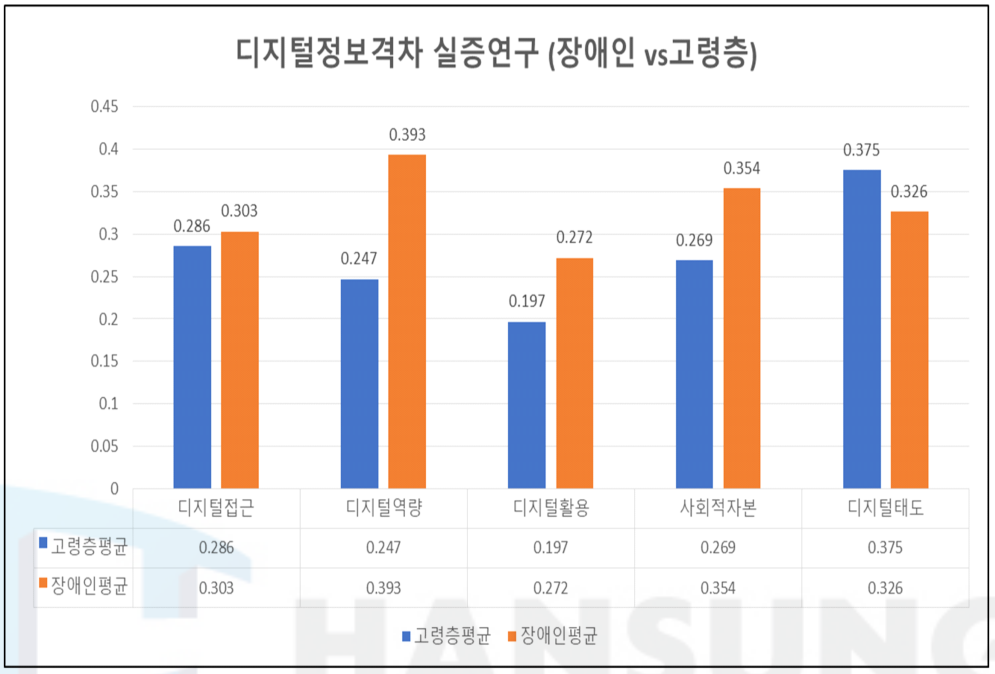
〈표 2-11〉 장애인 집단 디지털 정보격차 실증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방법		연구 결과		
		분석체계	표본	접근	역량	활용
김민석	2023	1069	독립	0.691	-	-
서유경	2023	183	독립	-	0.34	-
장혜림	2015	365	독립	-	0.238	-
연은모	2019	1639	독립	0.37	0.541	-
이향수	2020		독립	0.101	-	-
임예직	2021	2071	독립	-	0.385	-
노승현	2022	1232	독립	-	-	-
김아영	2022	1713	독립	0.294	-	-
황주희	2019	2200	독립	-	-	0.497
유나리	2020	85	독립	-	-	0.213
백세현	2021	1402	독립	0.009	-	-
이채식	2022	1737	독립	-	-	-0.148
문영임	2021	2200	독립	0.353	-	-
김대명	2022	2200	독립	-	0.293	0.233
장창기	2020	709	독립	-	0.562	
임예직	2022	2200	독립	-	-	0.566

〈표 2-12〉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실증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방법		연구 결과		
		분석모형	표본집단	접근	역량	활용
강수현	2023	독립		-	-	0.093
박세훈	2023	독립		-	-	0.132
정유빈	2022	독립	953	-	-0.092	-
황현정	2017	종속	993	0.01	-0.07	-
황영호	2016	독립	2700	-	0.301	-
신승윤	2019	독립	2299	-	0.099	0.107
김명일	2020	독립	1494	-	-	0.085
김봉섭	2020	독립	1088	-	-	0.161
고정현	2021	독립	1088	0.94	0.417	0.5
남희경	2022	독립	10097	-	-	0.275
김봉섭	2022	독립	653	0.263	-	0.263
최아름	2020	독립		-	-	0.11
오설미	2021	독립	607	0.396	-	-
김미혜	2021	독립	1660	-	-	0.303
이주형	2022	독립	2300	-	-	0.057
김판수	2014	독립	374	-	-	0.18
김수경	2019	독립	1491	0.226	-	0.241
윤희정	2020	독립	1662	-	-	0.253
김수경	2020	종속	1664	0.021	-	0.094
김태용	2022	독립	2300	0.144	-	-
이향수	2019	독립	153	-	-	0.0068
엄사랑	2020	독립	1665	-	0.69	0.279
김유나	2021	종속	1703	-	0.37	-
이서현	2021	독립	9920	-	-	0.151
최순화	2022	독립	1160	-	-	0.105
이홍재	2020	독립	615	-	0.261	0.384
고정현	2020	독립		-	-	0.411
엄사랑	2021	독립	1488	-	-	0.144
최순화	2022	독립	615	-	-	0.197

〈그림 2-9〉 장애인과 고령층 디지털정보 격차 연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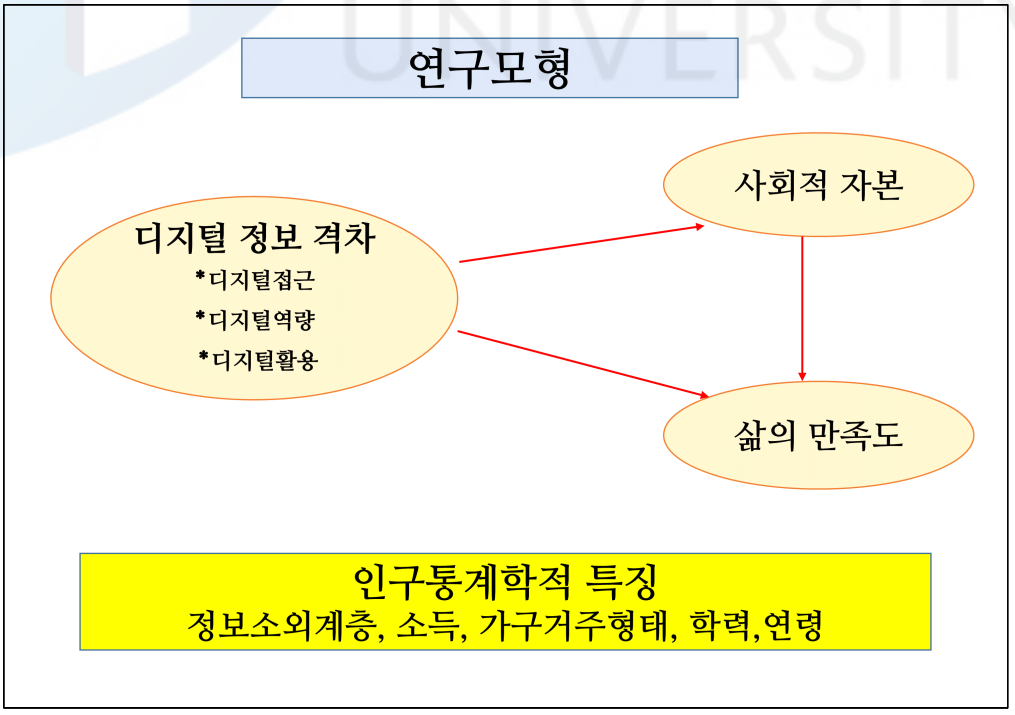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에 나타내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보 소외계층들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보 소외계층, 소득, 가구 거주형태, 학력, 연령의 5가지 요소에 따른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및 분석의 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디지털정보 격차에 관하여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1〉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가설

구 분	가 설
1	**디지털정보 격차는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디지털접근은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1-2	디지털역량은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1-3	디지털활용은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에 관계에 관련된 연구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2〉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 가설

구 분	가 설
2	**디지털정보 격차는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디지털접근은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2-2	디지털역량은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2-3	디지털활용은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은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3〉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가설

구 분	가 설
3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3.2 분석방법

첫째, 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하였다.

둘째,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정보 소외계층의 소득, 거주형태, 연령,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 간의 두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을 독립변수로 정보 소외계층, 소득, 거주형태, 학력, 연령 등 명목척도인 변수를 더미 변수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에 나타내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다섯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 1%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측정수단의 신뢰성 검증

〈표 4-1〉 측정수단의 신뢰성 검증결과

변수		크로바하 알파
디지털격차 요인	디지털접근	.885
	디지털역량	.921
	디지털 활용	.903
사회적 자본		.881
삶의 만족도		.845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도 분석을 하였다. 주로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선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디지털정보 격차 하위요인 및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각각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선출한 결과,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응답자의 특성

(1) 정보 소외계층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일반 국민이 7,000명으로 전체 13,800명 중 50.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사람 다음 순으로 고령층이 4,6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빈도분석의 결과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4-2〉 정보 소외계층의 빈도분석결과

정보 소외계층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일반 국민	7,000	50.70	50.7	50.70
	장애인	2,200	15.90	15.9	66.70
	고령층	4,600	33.30	33.3	100.0
	전체	13800	100	100	

(2) 소득

전체 응답자의 경우 중간소득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저소득, 고소득이 순이었다. 중간소득의 경우 6,316명으로 응답자 전체의 45.8%가 포함되어 있다. 〈표 4-3〉는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소득 군의 빈도분석결과

소득순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저소득	5,599	40.60	40.6	40.60
	중간소득	6,316	45.80	45.8	86.3
	고소득	1,885	13.7	13.70	100.0
	전체	13800	100	100	

(3) 가구 거주형태

가구 거주형태의 경우 아파트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13,800명 중 7,78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6.4% 울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 순으로 단독주택이 응답자의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표 4-4〉은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 가구 거주형태의 빈도분석결과

가구 거주형태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단독주택	3,735	27.10	27.10	27.10
	아파트	7,784	56.4	56.4	83.5
	연립/다세대(빌라)	2,156	15.60	15.6	99.1
	기타	125	0.9	0.90	100.0
	전체	13800	100	100	

(4) 최종학력

학력의 경우 전체 응답자 13,800명 중 5,996명이 고졸(대학교중퇴 포함)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비율은 4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빈도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4-5〉에 정리하였다.

〈표 4-5〉 최종학력의 빈도분석결과

최종학력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29	14.0	14.0	14.0
	중졸 (고등학교중퇴포함)	2,546	18.4	18.40	32.4
	고졸 (대학교중퇴 포함)	5,996	43.40	43.4	75.9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3,329	24.1	24.10	100.0
	전체	13800	100	100	

(5) 연령대

모두 고른 분포를 전체 응답자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장년이 30.6%를 차지하고 있었다. 빈도분석결과를 〈표 4-6〉에 요약하였다.

〈표 4-6〉 연령대의 빈도분석결과

연령대					
		빈도	%	유효 %	누적 %
유효	아동·청소년	902	6.5	6.5	6.5
	청년	2,163	15.7	15.7	22.2
	중년	2,456	17.8	17.8	40.0
	장년	4,228	30.6	30.6	70.6
	고령층	4,051	29.4	29.4	100.0
	전체	13800	100	100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중앙값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투입된 주요변수에 대한 수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수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회귀분석 전에 시행하였다.

〈표 4-7〉 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

기술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디지털접근	13,800	1	2	1.49	0.232
디지털역량	13,800	1	4	2.41	0.930
디지털 활용	11,884	1	4	1.90	0.633
사회적 자본	13,800	1	4	2.76	0.516
삶의 만족	13,800	1	4	2.55	0.548

4.3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위한 이원배치 분산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1)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정보 소외계층에 따라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 국민과 장애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일반 국민이 장애인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가 사후 검정 결과 나타났다.

〈표 4-8〉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332.875	6	55.479	216.346	0.000
소득	70.068	3	23.356	91.078	0.000
정보 소외계층 * 소득	37.333	18	2.074	8.088	0.000
오차	4921.035	19190	0.256		

p<.001

〈표 4-9〉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사후검정

기술통계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I-J)	유의확률
일반 국민	장애인	.521*	0.000
	고령층	.137*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521*	0.000
	고령층	-.384*	0.000
고령층	일반 국민	-.137*	0.000
	장애인	.384*	0.000

2)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다음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시행하였다. 일반 국민과 장애인과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도 일반 국민이 장애인이나 고령층보다 높은 응답 값을 보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4-10〉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 평균 차이

기술통계					
사회적 자본					
	표본수	평균 (Average)	표준 편차 (S,D)	최소값	최대값
일반 국민	7,000	2.90	0.472	1	4
장애인	2,200	2.54	0.534	1	4
고령층	4,600	2.67	0.514	1	4
전체	13,800	2.76	0.516	1	4

〈표 4-11〉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 사후검정

기술통계			
사회적 자본			
		평균 차이(I-J)	유의확률
일반 국민	장애인	.353*	0.000
	고령층	.229*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353*	0.000
	고령층	-.124*	0.000
고령층	일반 국민	-.229*	0.000
	장애인	.124*	0.000

3)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124.071, p<.001), 소득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300.878,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313, p<.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2〉과 같다.

〈표 4-12〉 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삶의만족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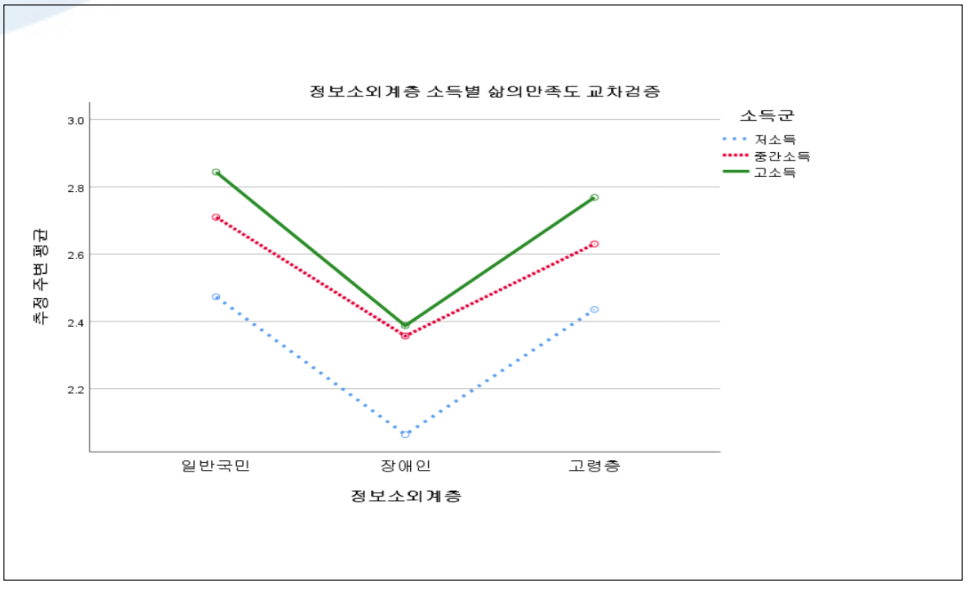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62.352	2	31.176	124.071	0.000
소득	151.207	2	75.603	300.878	0.000
계층*소득	3.330	4	0.833	3.313	0.010
	3465.346	13791	0.251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고소득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고소득과 중간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3〉 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사후검정

종속변수	정보소외계층	소득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국민	저소득	1681	2.47	0.502
		중간소득	3967	2.71	0.502
		고소득	1352	2.84	0.497
	장애인	저소득	1494	2.06	0.560
		중간소득	659	2.36	0.568
		고소득	47	2.39	0.552
	고령층	저소득	2424	2.44	0.470
		중간소득	1690	2.63	0.470
		고소득	486	2.77	0.468

〈그림 4-1〉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4)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98.364, p<.001), 소득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417.501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313, p<.0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4〉과 같다.

〈표 4-14〉 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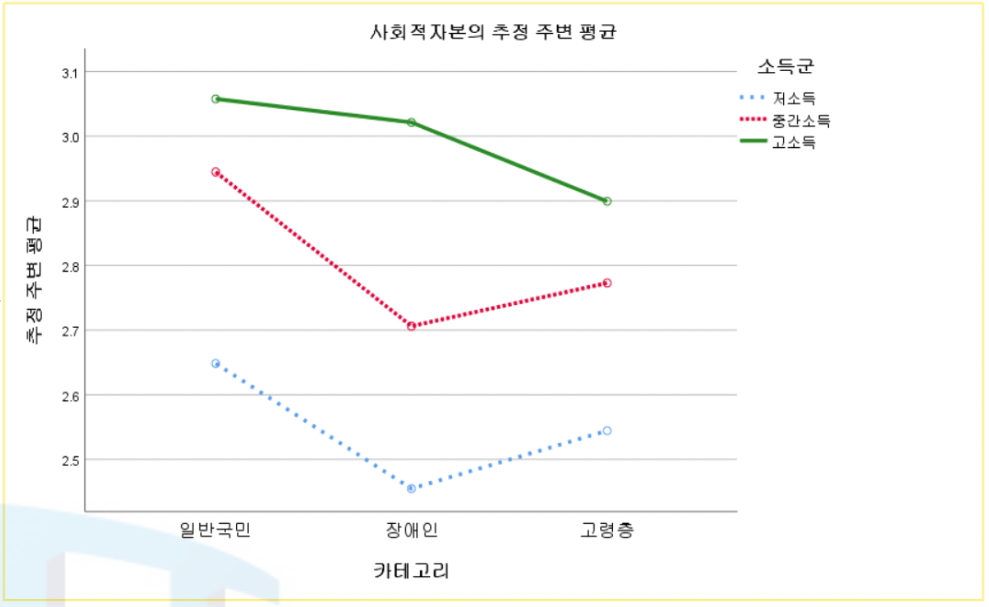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44.689	2	22.345	98.364	0.000
소득	189.682	2	94.841	417.501	0.000
계층*소득	4.239	4	1.060	4.665	0.001
	3132.809	13791	0.227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중간소득과 저소득의 차이가 중간소득과 저소득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고소득과 중간소득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높은 차이를 보이었다.

〈표 4-15〉 정보 소외계층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종속변수	정보소외계층	소득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저소득	1681	2.65	0.535
		중간소득	3967	2.94	0.422
		고소득	1352	3.06	0.408
	장애인	저소득	1494	2.45	0.548
		중간소득	659	2.71	0.447
		고소득	47	3.02	0.413
	고령층	저소득	2424	2.54	0.538
		중간소득	1690	2.77	0.453
		고소득	486	2.90	0.422

〈그림 4-2〉 정보 소외계층과 소득별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표4-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선희(2023), 김수진(2022), 최순화(2022), 김유나(2021), 김지현(2020), 김수경(2020) 등의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소득에 따른 선행연구 교차검증

연구자	연구 결과
권선희(2023)	● 가구 월평균 소득(t=2.831, p<.006), 디지털 활용능력 수준(t=2.711, p<.002), 그리고 일상생활(t=2.890, p<.004)과 경제 활동(t=2.240, p<.005)은 삶의 만족도와 positive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김수진(2022)	● 디지털역량(PC)(b=0.706, ρ<.001), 디지털역량(Mobile)(b=0.421, ρ<.001), 디지털역량(PC+Mobile)(b=0.279, ρ<.001)로 모두 소득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역량(PC)(b=0.030, ρ<.05), 디지털역량(Mobile)(b=0.040, ρ<.05), 지털역량(PC+Mobile)(b=0.079, ρ<.05)는 디지털 효능감을 매개로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역량은 소득에 직접적인 효과와 디지털 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최순화(2022)	●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t=-3.442, p<.001)과 소득(300-499만 원: t=.896에서 500만 원: t=2.126, p<.05)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면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김유나(2021)	●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가구소득,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 정보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김지현(2020)	● 소득에서는 모든 집단이 유사한 수준의 이용역량(F = 44.74, df = 7, 1356, p = .000)으로 도출됨
김수경(2020)	●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일상생활 만족도가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경제 수준, 연령, 교육 수준이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김지정(2023)	● 저소득과 중간소득 간의 positive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고소득이 중간소득과 저소득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임. 중간소득의 경우 고소득과 저소득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속 득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임

5)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584.860$, $p<.001$), 가구 거주형태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5.882$,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가구 거주형태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911$, $p<.0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7〉과 같다.

〈표 4-17〉 정보 소외계층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310.461	2	155.231	584.860	0.000
가구 거주형태	3.122	2	1.561	5.882	0.003
계층*가구 거주형태	8.399	4	2.100	7.911	0.000
	3627.162	13666	0.265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아파트 거주형태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아파트 거주형태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8〉 정보 소외계층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사후검정

종속변수	정보소외 계층	가구거주 형태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단독주택	1788	2.63	0.490
		아파트	4020	2.70	0.516
		연립/다세대 (빌라)	1123	2.67	0.552
	장애인	단독주택	521	2.18	0.548
		아파트	1256	2.13	0.587
		연립/다세대 (빌라)	411	2.25	0.580
	고령층	단독주택	1426	2.50	0.443
		아파트	2508	2.57	0.495
		연립/다세대 (빌라)	622	2.54	0.517

〈그림 4-3〉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6)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433.819, p<.001), 가구 거주형태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24.837,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가구 거주형태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347, p<.250).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19〉와 같다.

〈표 4-19〉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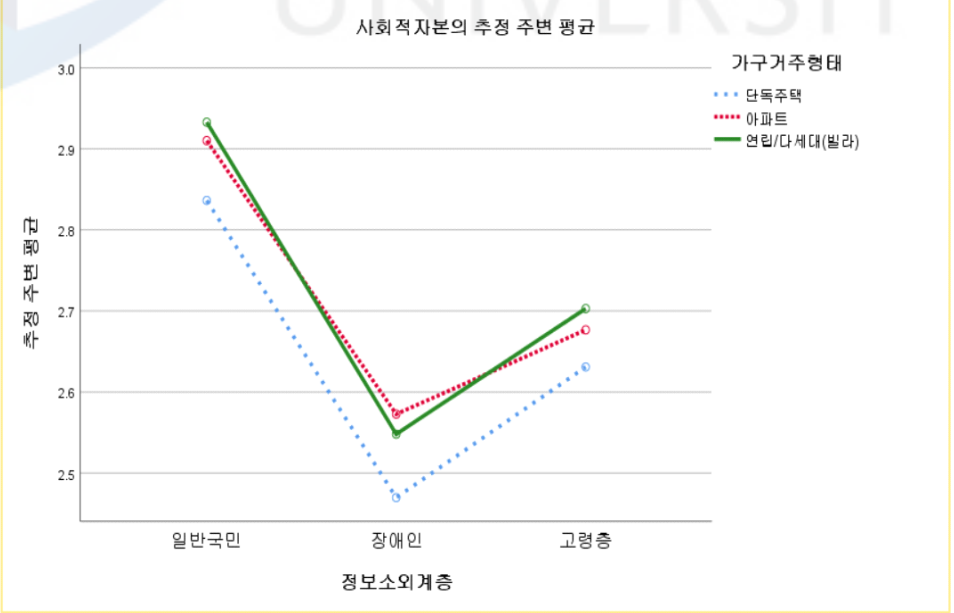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213.212	2	106.606	433.819	0.000
가구 거주형태	12.207	2	6.103	24.837	0.000
계층*가구 거주형태	1.324	4	0.331	1.347	0.250
	3358.256	13666	0.246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연립 거주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아파트 거주형태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0〉 정보 소외계층 가구 거주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종속변수	정보소외 계층	가구거주 형태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일반 국민	단독주택	1788	2.84	0.488
		아파트	4020	2.91	0.465
		연립/다세대 (빌라)	1123	2.93	0.462
	장애인	단독주택	521	2.47	0.530
		아파트	1256	2.57	0.542
		연립/다세대 (빌라)	411	2.55	0.509
	고령층	단독주택	1426	2.63	0.531
		아파트	2508	2.68	0.503
		연립/다세대 (빌라)	622	2.70	0.519

〈그림 4-4〉 정보 소외계층과 가구 거주형태별 사회적 자본의 교차검증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표 4-2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태용(2022), 김미혜(2021), 김지현(2020), 임정훈(2020), 김지현(2020)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그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가구 거주형태 선행연구 교차검증

연구자	연구 결과
김태용(2022)	● 중고령자 가구 유형(b=0.083, p>0.001)이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중고령자 가구 유형이 종속변수인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디지털 정보화 수준(b=0.209, p>0.000)은 종속변수인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중고령자 가구 유형과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 사이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됨.
김미혜(2021)	●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서 연령 중 70대 이상, 성별,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졸 이상, 2·3세대 가구 중 고령자였으면 디지털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서 최종학력 대졸 이상, 최종학력 고졸, 2·3세대 가구 중고령자 그리고 디지털역량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은 디지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사이의 관계에서 디지털역량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함.
김지현(2020)	● 가족 구성에 따른 이용역량의 차이에서 1인 가구, 1세대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균에 못 나타내는 수준의 이용역량을 보여주었고, 조부모와 부부, 자녀들이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용역량을, 2세대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섯 집단 중 가장 높은 이용역량을 지닌 것(F = 26.34, df = 4, 1359, p = .000)으로 나타남
임정훈(2020)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성별(B=-4.99, p<.001), 학력(B=4.45. p<.001), 이용 동기(B=3.31, p<.01), 이용태도(B=7.96, p<.001), 지능정보사회 인식(B=6.09, p<.001), 삶의 만족도(B=3.02, p<.05)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세대의 경우 가구 형태(B=-6.58, p<.01), 이용태도(B=11.85, p<.001), 지능정보사회 인식(B=9.81, p<.001), 삶의 만족도(B=6.97, p<.01)가 디지털 정보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김지정(2023)	● 단독주택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 순으로 다세대/연립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7)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65.283, p<.001), 학력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150.632,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학력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3.611, p<.0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22〉과 같다.

〈표 4-22〉 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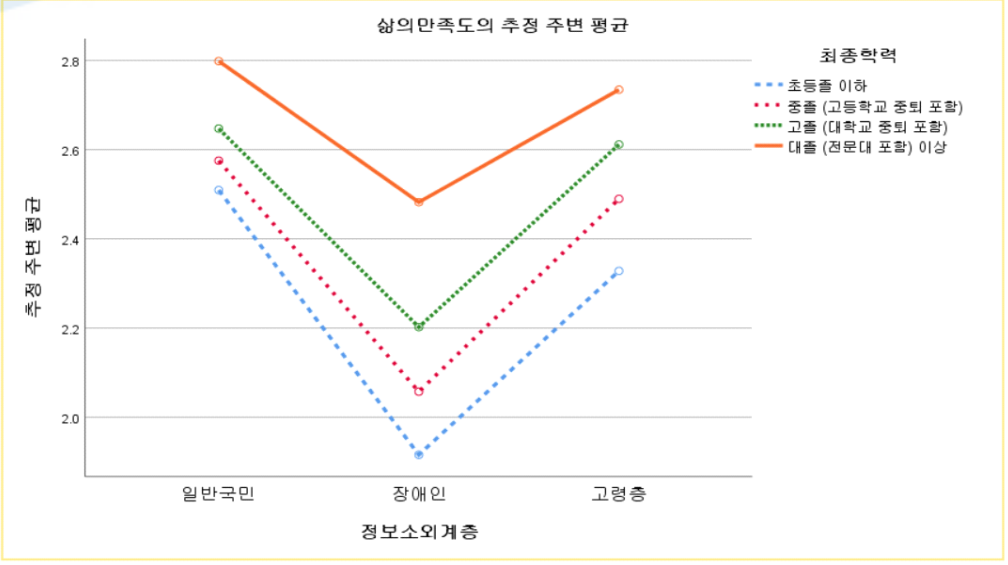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계층	265.283	2	132.642	523.987	0.000
학력	150.632	3	50.211	198.352	0.000
계층*학력	13.611	6	2.268	8.961	0.000
	3490.282	13788	0.253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대졸의 삶의 만족 돈이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대졸이 고졸이나 중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3〉 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종속변수	정보소외 계층	학력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초등졸 이하	N	2.51	0.521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750	2.58	0.517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924	2.65	0.507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737	2.80	0.499
	장애인	초등졸 이하	2589	1.92	0.523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303	2.06	0.567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542	2.20	0.564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1109	2.48	0.557
	고령층	초등졸 이하	246	2.33	0.463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876	2.49	0.466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1080	2.61	0.475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150	2.73	0.453

〈그림 4-5〉 정보소외계층과 학력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8)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81.219 p<.001), 학력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373.024,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학력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6.737, p<.001).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24〉와 같다.

〈표 4-24〉 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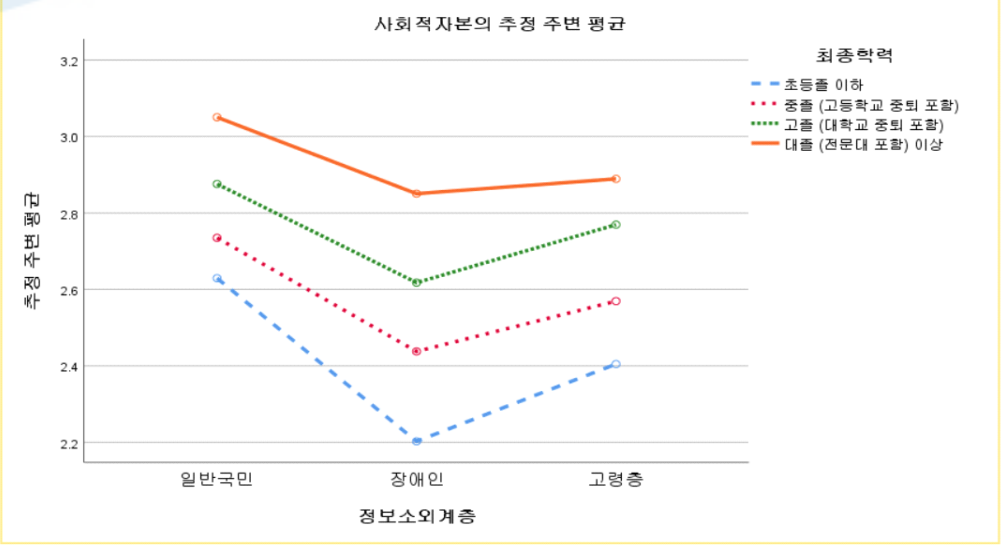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 계층	125.396	2	62.698	281.219	0.000
학력	249.497	3	83.166	373.024	0.000
계층*학력	9.012	6	1.502	6.737	0.000
	3074.035	13788	0.223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대졸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대졸이 고졸이나 중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5〉 정보 소외계층 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종속변수	정보소외계층	학력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일반 국민	초등졸 이하	750	2.63	0.578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924	2.73	0.531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2737	2.88	0.438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589	3.05	0.385
	장애인	초등졸 이하	303	2.20	0.580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542	2.44	0.512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1109	2.62	0.488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246	2.85	0.451
	고령층	초등졸 이하	876	2.40	0.546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1080	2.57	0.529
		고졸 (대학교 중퇴 포함)	2150	2.77	0.455
		대졸 (전문대 포함) 이상	494	2.89	0.426

〈그림 4-6〉 정보소외계층과 학력별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에 관한 같은 연구 결과는 〈표 4-2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현(2021), 김미혜(2021), 김유나(2021), 김지현(2020), 김수경(2020), 임정훈(2020)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그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정보 소외계층과 학력별 선행연구 교차검증

연구자	연구 결과
고정현(2021)	●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학력(회귀계수=.121, p<.001), 연령(회귀계수=-.012, p<.001)과 정보이용 역량(회귀계수=.006, p<.001)과 이용동기·효능감(회귀계수=.101, p<.001)은 정보의 질적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학력, 디지털 이용동기·효능감, 연령의 순서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됨. 디지털 조력자 변수를 추가한 모델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학력과 연령 그리고 정보이용 역량과 이용 동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김미혜(2021)	●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서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졸 이상, 성별, 연령 중 70대 이상, 2·3세대 가구 중 고령자였으면 디지털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졸 이상, 2·3세대 가구 중고령자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김유나(2021)	● 인구 사회적 특성 중 교육 수준, 성별, 연령, 가구소득이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김지현(2020)	● 여성보다는 남성(F = 78.31, df = 1, 1362, p = .000)이, 연령이 낮을 수록(F = 68.61, df = 4, 1359, p = .000), 학력이 높을수록(F = 125.07, df = 4, 1359, p = .000), 직업이 있는 집단(F = 75.89, df = 1, 1362, p = .000)일수록, 거주 지역의 경우 시에 거주하는 사람(F = 27.03, df = 1, 1362, p = 000)일수록 스마트폰 이용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김수경(2020)	●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일상생활 만족도가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교육 수준, 연령, 경제 수준이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임정훈(2020)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성별(B=-4.99, p<.001), 학력(B=4.45. p<.001), 이용 동기(B=3.31, p<.01), 이용태도(B=7.96, p<.001), 지능정보사회 인식(B=6.09, p<.001), 삶의 만족도(B=3.02, p<.05)는 디지털 정보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김지정(2023)	●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가 대졸 이상의 경우 나타났고 전문대졸 집단과 대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9)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 평균 차이 검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358.784 p<.001), 연령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70.372,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 와 연령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243, p<.286). 위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4-27〉과 같다.

〈표 4-27〉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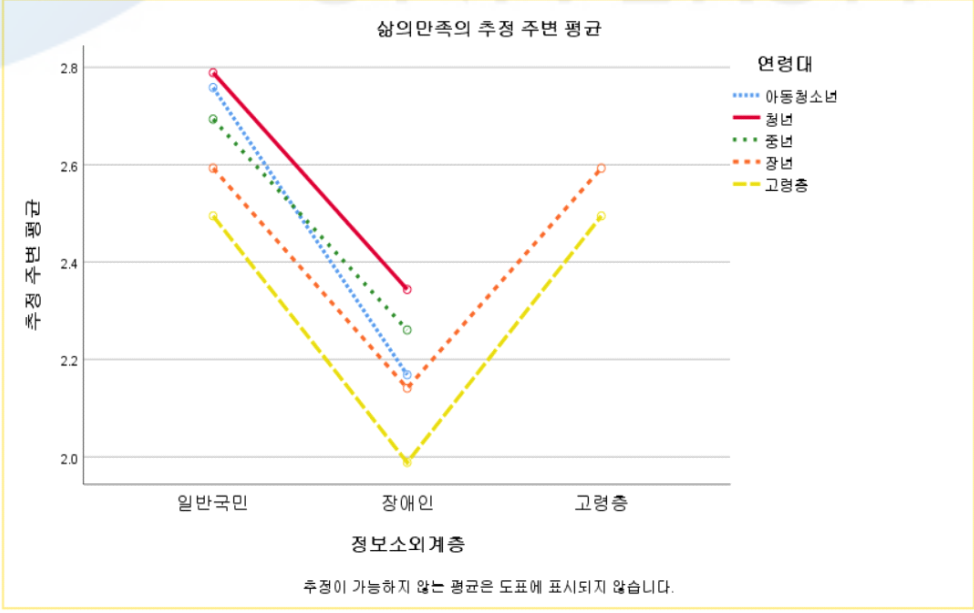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소외 계층	185.709	2	92.855	358.784	0.000
연령	72.851	4	18.213	70.372	0.000
계층*연령	1.609	5	0.322	1.243	0.286
	3568.386	13788	0.259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장년이 고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8〉 정보 소외계층과 나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종속변수	정보소외계층	연령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아동·청소년	883	2.76	0.525
		청년	1985	2.79	0.526
		중년	1832	2.69	0.503
		장년	1110	2.59	0.475
		고령층	1190	2.49	0.489
	장애인	아동·청소년	19	2.17	0.626
		청년	178	2.34	0.608
		중년	624	2.26	0.591
		장년	898	2.14	0.567
		고령층	481	1.99	0.523
	고령층	장년	2220	2.59	0.475
		고령층	2380	2.49	0.489

〈그림 4-7〉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별 삶의 만족도 교차검증



10)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평균 차이 검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 각각 주 효과와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89.144 p<.001), 연령의 주 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F=171.666, p<.001) 그리고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903, p<.001).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표 4-29〉에 정리하였다.

〈표 4-29〉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 평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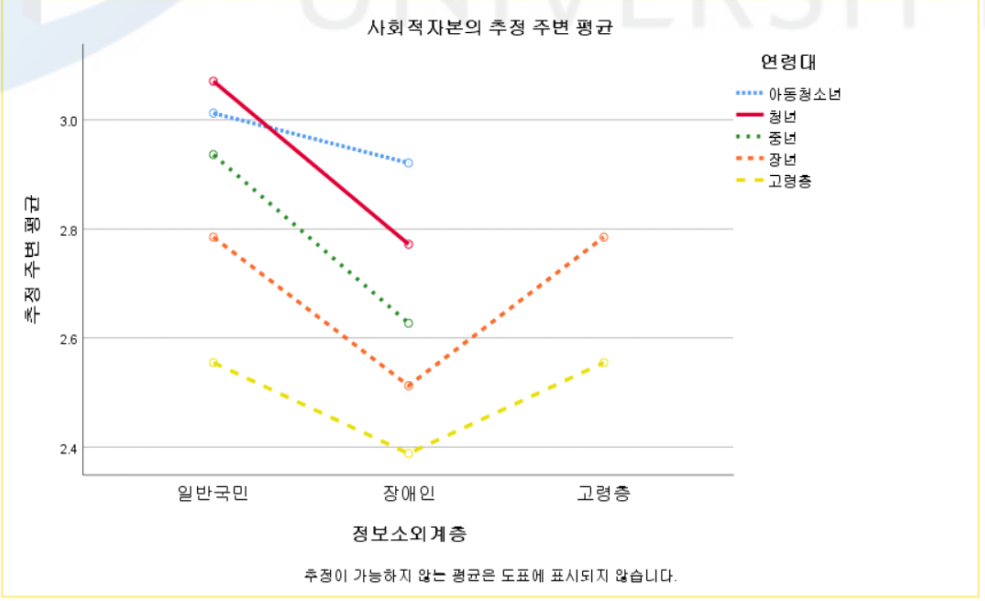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보 소외 계층	39.881	2	19.941	89.144	0.000
연령	153.600	4	38.400	171.666	0.000
계층*연령	5.484	5	1.097	4.903	0.000
	3084.252	13788	0.224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청년의 사회적 자본가 다른 정보 소외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장년이 고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30〉 정보 소외계층과 나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종속변수	정보 소외계층	연령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자본	일반 국민	아동·청소년	883	3.01	0.432
		청년	1985	3.07	0.380
		중년	1832	2.94	0.407
		장년	1110	2.78	0.462
		고령층	1190	2.55	0.535
	장애인	아동·청소년	19	2.92	0.534
		청년	178	2.77	0.538
		중년	624	2.63	0.516
		장년	898	2.51	0.508
		고령층	481	2.39	0.550
	고령층	장년	2220	2.78	0.462
		고령층	2380	2.55	0.535

〈그림 4-8〉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별 사회적자본 교차검증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관한 같은 연구 결과는 〈표 4-3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성희(2023), 고정현(2021), 김미혜(2021), 김유나(2021), 김지현(2020), 김수경(2020),임정훈(2020)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그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정보 소외계층과 연령에 따른 선행연구 교차검증

연구자	연구 결과
권선희(2023)	● 고령층을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한 결과 일상생활, 사회 참여, 경제 활동 측면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의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고양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나이(, 성별은 디지털 활용능력에 부적인 관계를, 가구 월평균 소득,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은 정적인 관계를 보임. 사회 참여는 유의한 영향 없음.
고정현(2021)	●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학력과 연령, 정보이용 역량과 이용 동기·효능감은 정보의 질적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이용 역량은 정보의 질적 이용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연령, 디지털 이용 동기·효능감, 학력의 순서로 영향력이 확인됨. 디지털 조력자 변수를 추가한 모델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학력과 연령 그리고 정보이용 역량과 이용 동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김미혜(2021)	●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에서 연령 중 70대 이상, 성별, 최종학력 고졸, 최종학력 대졸 이상, 2·3세대 가구 중 고령자였으면 디지털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김유나(2021)	● 인구 사회적 특성 중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가구소득이 정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김지현(2020)	● 여성보다는 남성(F = 78.31, df = 1, 1362, p = .000)이, 연령이 낮을수록(F = 68.61, df = 4, 1359, p = .000), 학력이 높을수록(F = 125.07, df = 4, 1359, p = .000), 직업이 있는 집단(F = 75.89, df = 1, 1362, p = .000)일수록, 거주 지역의 경우 시에 거주하는 사람(F = 27.03, df = 1, 1362, p = 000)일수록 스마트폰 이용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김수경(2020)	●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연령(p<.001,b=.158), 경제수준(b=.097, p<.01), 교육 수준(p<.001, b=.190)이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에 positive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임정훈(2020)	●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보다 전반적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 격차종합에서 집단 간 차이(t=23.9, p<.01)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남
김지정(2023)	●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나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연령과 삶의 만족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를 대상으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32〉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관계

상관관계			
	디지털정보 격차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
디지털정보 격차	1		
사회적 자본	.471**		
삶의 만족	.329**	.473**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1)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관계

〈표 4-32〉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에 백번 시행하여 5번 미만의 오류가 발생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의 값이. 473으로써 47.3%만큼의 상관관계 영향력이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간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변수가 정(+)적인 관계로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이 47.3%의 영향을 받아 함께 증가를 나타내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정보 격차는 사회적 자본이나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여 이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였다.

2)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 간의 관계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들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위의 결과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만족은 디지털정보 격차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 중 디지털역량($p<.01$, $r=.290$)와 디지털 활용($p<.01$, $r=.334$)에서는 의미 있는 통계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인 디지털역량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정적(+) 관계가, 디지털 활용이 높아지면 정적(+)으로 삶의 만족도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4-33〉로 정리하였다. *는 5%에서 유의하며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디지털정보 격차,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수 간의 관계

상관관계						
	접근	역량	활용	디지털정보 격차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
접근	1					
역량	-.703**	1				
활용	-.504**	.643**	1			
디지털 정보 격차	-.580**	.926**	.876**	1		
사회적 자본	-.386**	.475**	.391**	.471**	1	
삶의 만족	-.263**	.290**	.334**	.329**	.473**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또한,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들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역시 삶의 만족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접근($p<.05$, $r=-.386$)와 디지털역량($p<.01$, $r=.47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디지털접근이 높아지면 사회적 자본은 떨어지는 부적(-) 관계를, 디지털역량이 높아지면 사회적 자본 역시 정적(+)으로 높아지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디지털정보 격차 전체와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 하위 변수 간에는 유일하게 사회적 자본이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r=.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HANSUNG UNIVERSITY

4.5. 디지털정보 격차 교차검증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3가지의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인구 통계적 변수인 정보 소외계층, 소득, 가구 거주형태, 연령, 학력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34〉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모형		B		b	t값	유의확률(p)
		B	표준화 오차	베타(b)		
삶의 만족도	(상수)	2.164	0.06		36.039	0
	접근	0.068	0.03	0.263	2.248	0.025
	역량	-0.017	0.009	-0.29	-1.951	0.051
	활용	0.245	0.01	0.334	25.113	0
	장애인	-0.341	0.014	-0.228	-23.906	0
	고령층	0.011	0.013	0.009	0.849	0.396
	저소득	-0.126	0.012	-0.111	-10.784	0
	고소득	0.084	0.013	0.056	6.393	0
	단독주택	0.019	0.011	0.015	1.757	0.079
	연립/다세대(빌라)	0.002	0.013	0.001	0.14	0.889
	기타	-0.118	0.048	-0.02	-2.467	0.014
	초등학교 졸업 이하	-0.126	0.023	-0.066	-5.492	0
	중졸(고등학교중퇴포함)	-0.084	0.018	-0.059	-4.533	0
	고졸(대학교중퇴포함)	-0.051	0.013	-0.048	-4.09	0
	아동·청소년	0.162	0.023	0.079	7.107	0
	청년	0.003	0.017	0.002	0.208	0.835
	중년	-0.005	0.015	-0.004	-0.329	0.742
	고령층	0.075	0.013	0.059	5.592	0
a. 종속변수: 삶의 만족						

1)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구성 개념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정보 소외계층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통계적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로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인 3개의 변수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소외계층, 소득, 가구 거주형태, 학력, 나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접근과 디지털 활용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미치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역량과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분석결과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면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론적으로는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론적 설명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발생하였다. 다양하게 이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나 동료들의 지원이 없을 때는 능력 발휘의 기회는 오히려 과중한 부담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 회귀분석에 일반국민을 기준변수로 장애인과 고령층을 가변수화하여 사용한 결과 장애인 집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나 고령층 집단은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 소외계층의 차이는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나이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미치고 있다. 기준변수는 본 연구모형에서 50세 이상 집단이다. 다른 연령대의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는 회귀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4-35〉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디지털정보 격차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디지털정보 격차						
		제곱합	Degree of Freedom	평균제곱	F값	유의확률 (P)
디지털접근	집단-간	81.905	2	40.953	855.867	0.000
	집단-내	660.175	13797	0.048		
	전체	742.080	13799			
디지털역량	집단-간	1796.011	2	898.006	1221.830	0.000
	집단-내	10140.349	13797	0.735		
	전체	11936.360	13799			
디지털활용	집단-간	365.374	2	182.687	493.888	0.000
	집단-내	4394.734	11881	0.370		
	전체	4760.108	11883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 중 모든 변수에서 현재 정보 소외계층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활용 모두 두 집단 간 평균차인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산분석 이후에 평균차에 대한 사후검정을 통해 어떤 집단이 더욱 높은 응답지를 보였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산분석 사후분석결과는 〈표 4-36〉와 같다.

〈표 4-36〉 정보 소외계층에 따른 디지털정보 격차의 차이 사후검정

다중비교				
종속변수			평균 차이(I-J)	유의확률
디지털접근	일반 국민	장애인	-.151*	0.000
		고령층	-.155*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151*	0.000
		고령층	-0.004	0.792
	고령층	일반 국민	.155*	0.000
		장애인	0.004	0.792
디지털역량	일반 국민	장애인	.560*	0.000
		고령층	.778*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560*	0.000
		고령층	.217*	0.000
	고령층	일반 국민	-.778*	0.000
		장애인	-.217*	0.000
디지털 활용	일반 국민	장애인	.236*	0.000
		고령층	.390*	0.000
	장애인	일반 국민	-.236*	0.000
		고령층	.154*	0.000
	고령층	일반 국민	-.390*	0.000
		장애인	-.154*	0.000
*. 평균차인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분산분석 모형 적합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접근은 일반 국민과 장애인, 고령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역량의 경우 장애인과 고령층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장애인의 디지털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활용의 경우 일반 국민과 장애인, 고령층 간의 유의미한 차이 존재하며 고령층과 장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의 회귀분석 결과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 하위 변수들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의 3가지 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역량과 디지털접근, 디지털 활용은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역량은 삶의 만족과 달리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자본에도 디지털역량의 해석은 삶의 만족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디지털접근과 디지털 활용은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업이 중요할수록 과업을 수행할 때 재량이 많이 주어질수록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은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 소외계층의 차이도 사회적 자본에 장애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고령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학력의 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4-37〉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모형		B	b	t값	유의확률(p)
		B	베타		
사회적 자본	(상수)	2.178		42.332	0.000
	접근	0.076	0.13	2.971	0.003
	역량	0.116	0.33	15.675	0.000
	활용	0.144	0.243	17.219	0.000
	장애인	-0.163	-0.125	-13.347	0.000
	고령층	-0.002	-0.002	-0.201	0.841
	저소득	-0.047	-0.048	-4.729	0.000
	고소득	0.060	0.046	5.330	0.000
	단독주택	0.033	0.030	3.575	0.000
	연립/다세대(빌라)	0.003	0.002	0.256	0.798
	기타	-0.024	-0.005	-0.587	0.557
	초등학교 졸업 이하	-0.128	-0.077	-6.510	0.000
	중졸(고등학교중퇴 포함)	-0.068	-0.055	-4.321	0.000
	고졸(대학교중퇴 포함)	-0.033	-0.035	-3.048	0.002
	아동·청소년	0.171	0.095	8.717	0.000
	청년	0.044	0.036	3.046	0.002
	중년	0.012	0.010	0.925	0.355
	고령층	0.009	0.008	0.819	0.413
a. 종속변수: 사회적 자본					

3)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간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들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한 후 통제한 상태에서 두 변수만을 이용하여 partial correl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편 상관분석 결과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높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r=0,473)를 보였다. 삶의 만족이 증가하면 사회적 자본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rtial correlation 분석결과는 〈표 4-38〉과 같다.

〈표 4-38〉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편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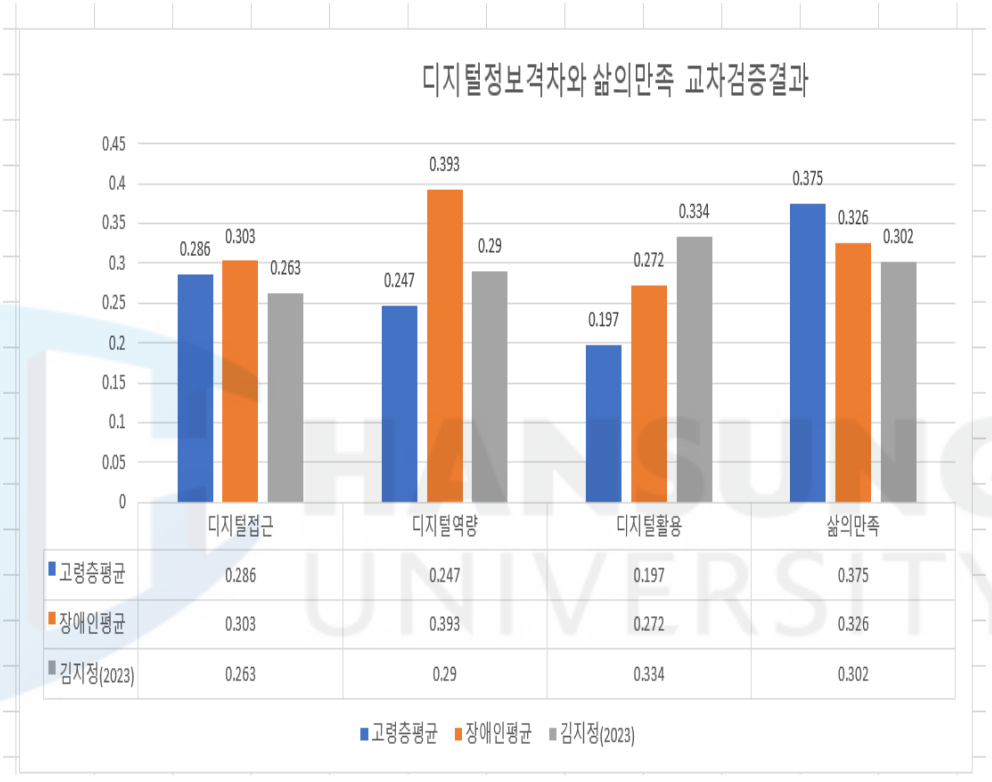
상관관계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
사회적 자본	Pearson 상관	1	.473**
	유의확률 (양측)		0.000
	N	13800	13800
삶의 만족	Pearson 상관	.473**	1
	유의확률 (양측)	0.000	
	N	13800	13800
** 상관관계가 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의 유의수준 p〈.01

4.6 가설검증 결과에 관한 논의

1)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관계에 대한 논의

〈그림 4-9〉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 교차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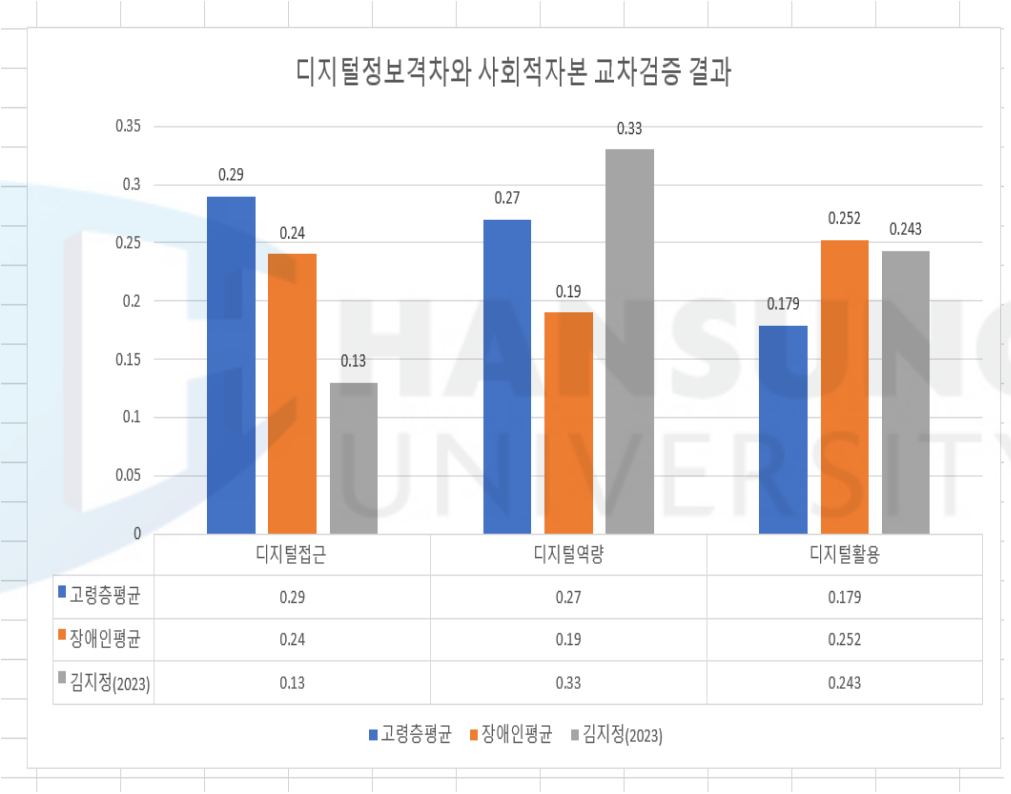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에 관하여 설정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그림 4-9〉와 같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정보 격차와 삶의 만족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활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 해당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

검증결과 디지털접근은 회귀계수가 0.263으로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디지털 활용은 회귀계수가 0.29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 변수는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이다. 디지털역량과 디지털접근과 디지털 활용 모두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활용이 모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 교차검증 결과



2)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에 관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4-10〉과 같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정보 격차와 사회적 자본은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 해당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

검증결과 디지털접근은 회귀계수 0.13으로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디지털역량은 회귀계수 0.33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었고, 디지털 활용은 회귀계수 0.243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 중 디지털역량과 디지털 활용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사회적 자본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 디지털정보 격차의 하위 변수는 디지털역량과 디지털접근, 디지털 활용이다. 디지털역량은 사회적 자본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있었으며, 디지털접근과 디지털 활용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고 모두 사회적 자본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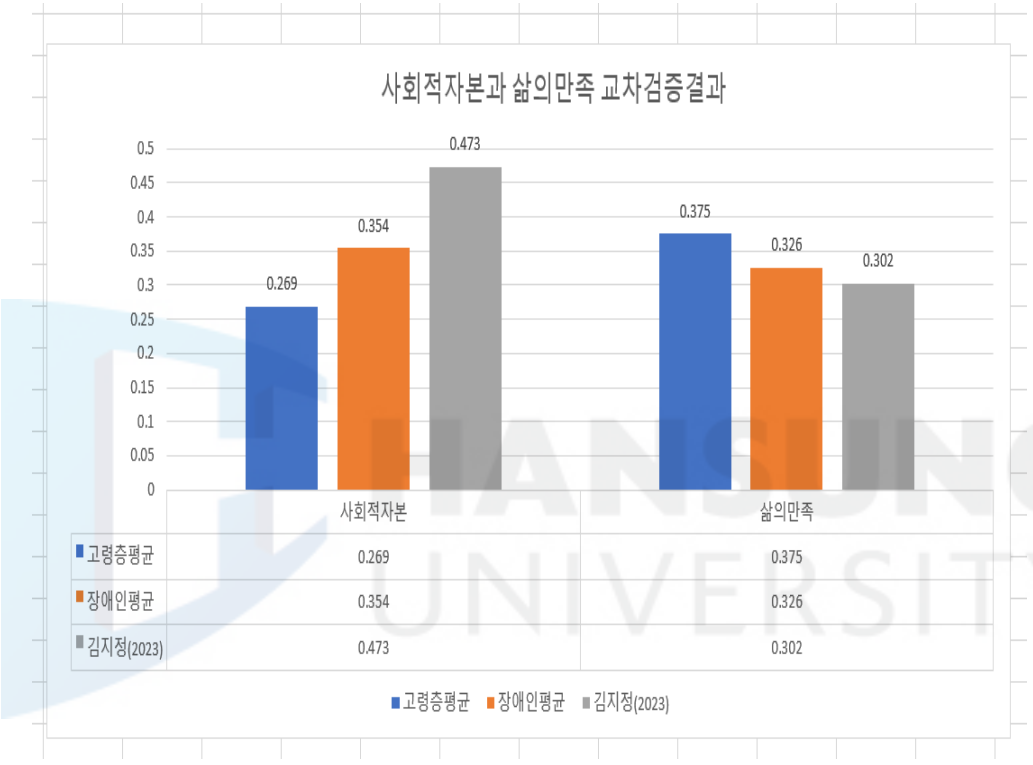
3)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하여 설정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그림 4-1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 해당 귀무가설을 채택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은 사회적 자본에 표준화 계수 b=0.715우 독립변수 투입에 따라 종속변수가 71.5%만큼 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이 상승할수록 사회적 자본도 함께 상승함을 알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 증가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두 연구자 모두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이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관계에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정보 소외계층

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제고는 곧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정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며, 삶의 만족 증가 역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1〉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교차검증 결과



V.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격차(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디지털정보 격차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디지털정보 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인 디지털접근, 디지털역량, 디지털 활용 모두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접근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2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 가설 1과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접근은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3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채택되었다. 삶의 만족을 독립변수로 하여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간에 영향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논리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가설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첫째,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이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 요인의 3차원이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요인 예측에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의 3차원 역시 사회적 자본요인에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이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모든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암시되었다.

5.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과 삶의 만족 요인 및 사회적 자본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위한 시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자 또는 실무자들에게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에 대한 디지털 활용에 기반을 둔 실증적 측면의 영향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만족도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 소외계층은 정보이용자들의 콘텐츠 및 기타 문화에 대한 반응을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활용에 관련된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를 이해함으로써 관리자들은 이용자들의 해석 능력을 증진하게 시킬 수 있는 정보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보 소외계층 이용자들에 대해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의 어떤 차원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 전략을 세우기 위한 가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삶의 만족 요인과 사회적 자본요인의 상호 비교에서는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 자본요인보다 삶의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 자본요인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디지털 활용 때문에 고객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 요인에 가장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능력의 제고는 곧 그들의 삶의 만족 수준과 사회적 자본 수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에서는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정보 격차가 사회적 자본요인을 통한 삶의 만족 요인이 삶의 만족에 대한 직접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환경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 격차요인은 삶의 만족 요인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요인과 같은 간접효과와 더불어 전체 정보 소외계층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보 소외계층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 사이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나 삶의 만족 요인 중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의 성공은 다른 부분에 대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고정현. (2021). 고령층의 정보의 질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조력자 활용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35(3), 23-46.

고정현, 박선주. (2020). 사회적 지지가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34(2), 121-149.

고정현, 박선주. (2021). 고령층의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조력자 활용 유형화와 특성 비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4(2), 1-30.

권선희. (2023). 고령층의 디지털 디바이드 현황 분석.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5(1), 1-21.

권준영, 임희정. (2022). 장·노년층 치과 선택 및 디지털정보화수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1), 842-849.

김대명. (202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14.1, 073-097.

김명일, 김영선, 엄사랑.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3(1) (2020): 51-74.

김미혜, 남윤재, 선승아. (2021). 중고령자의 가구유형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9(5), 69-79.

김민석. (2023). 고령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디지털 정보역량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8(1), 91-102.

김봉섭, 고정현. (2020:). 고령층 디지털 사회 자본에 대한 디지털 조력자 영향 연구: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3(2), 27-57.

김봉섭, 고정현. (2022). 노년층의 성취자본이 디지털자본 획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 29.2, 106-126.

김소영, 정진택. (2021). 코로나이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인식변화에 관한연구.『디지털융복합연구』, 19(12), 531-539.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2019).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사회참여/네트워크 활동의 매개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7(12), 23-34.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3), 23-34.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간의 관계 연구: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7(3), 39-55.

김수진, 신하영. 디지털역량, 디지털효능감 및 소득 간 구조적 관계 -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4.12 (2022) 1245-1260.

김승환, 성준욱. (2020).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과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7(3), 19-38.

김시현, 이건창. (2019). PC 이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서비스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7(9), 55-60.

김아영, 김경미. (2022). 장애인의 전자정부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56(56), 5-31.

김영미. (2020).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역량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 만족도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1 (3), 1-32.

김유나, 변은지. (2021). 고령층 디지털 정보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9(3), 89-97.

김정호, 서준교, 구교준. (201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방안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13(3), 581-596.
김지현.(2020).우리는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노년층 내에서의 디지털 격차 결정요인.정보사회와 미디어, 21(3),33-64.
김태용,이정우. (2022). 중고령자의 가구 유형이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3), 372-382.
김판수, 김희섭, 이미숙. (2014).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8), 197-205.
김판수, 김희섭, 이미숙. (2014). 고령층의 정보 활용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1), 25-47.
남희경. (2023).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44015)
노승현. (2021).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 - 청장년 장애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28(2), 81-97.
노승현, 김정석, 곽정란. (2022).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조력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모바일 정보활용의 매개효과: 고령 및 청장년층 다중집단비교분석.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 26.2, 55-76.
문영민, 임예직. (2020). 사회적 자본이 4차 산업혁명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유무의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4(4), 205-233.
문영임, 이성규, 김지혜. (2021).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3(3), 119-142.
문영임, 이성규, 김지혜. (2021).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28(4), 36-53.
박문우. (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 실태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정보격차 문제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3), 227-258.

박문우. (2010).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시민혁명 혁명 가능성에 대한 고찰. 『문화예술콘텐츠』, (6), 130-162.

박세훈, 류찬하, 박세진, 천동필. (2023). 제3수준 정보격차 영향요인에 관한 고령층과 전체 연령층 간 비교 연구 :모바일과 PC를 통한 인터넷 활동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6(1), 1-25.

백세현, 이성규. (2021). 지체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2(6), 17-25.

송지향, 김동욱. (2014). 장애인의 스마트기기 사용능력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21(2), 67-88.

송효진. (2006).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복지정보서비스 수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승윤, 김동욱. (2019). 장노년층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모바일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14(2), 227-267.

신승윤, 엄석진. (2019). 국내 결혼이민자의 모바일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2(2), 73-109.

양심영, 황진구. (2002).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 『한국지역정보화학회』, 35, 299-341.

엄사랑, 신혜리, 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 정보역량, 정보활동,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와 삶의 만족도의 경로분석: 정보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3(2), 31-54.

엄사랑, 신혜리, 김영선. (2021). 중고령자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9(3), 1-12.

연은모, 최효식. (2019).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636-644.

오설미. (2021). 노인의 디지털 정보수준이 신기술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이용성과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설미, 최송식. (2021). 노인의 디지털 정보수준이 신기술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이용성과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76(4), 137-170.

오승연, 김혜란. (2019). 중·고령층 보험·금융소비자의 정보격차 실태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470, 1-8.

유나리, 김승완. (2020).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중소기업융합학회』, 10(9), 111-122.

유병민, 김수욱, 박성열, 박혜진, 이은진. (2009). 농업정보화를 위한 농업인 ICT리터러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산업교육학회』, 41(4), 93-119.

윤희정, 신혜리, 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27(4), 85-100.

이경락, 이상준. (2021).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리터러시 현황과 과제.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6(4), 873-885.

이미아, 김태강. (2022). 청장년층 장애인의 디지털 시민 역량 예측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 21.1, 33-53.

이서연. (2021).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12(6), 307-322.

이주형, 김기현. (2022). 고령자의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이용량 변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 25.1, 35-61.

이지현, 여영훈, 오지원, 학해군. (2023). COVID-19 시대 소득그룹 간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디지털서비스 역량, 인식변화,

이용량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3), 408-417.
이채식, 문영임, 김지혜. (2022).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의 이용 의도 영향요인 연구 : 자발적, 비자발적 비이용 집단 비교분석.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1. 24.2, 209-236.
이향수, 이성훈. (2018).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6(11), 29-36.
이향수, 이성훈. (2018).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정책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6(4), 23-28.
이향수, 이성훈. (2018). 농어민의 정보격차와 소득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6(1), 13-20.
이향수, 이성훈. (2019).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에의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7(2), 1-7.
이향수, 이성훈, 정용훈. (2020).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3), 43-48.
이향수, 이성훈, 최정아. (2016). 정보소외대상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 :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자 재정의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4(6), 1-7.
이홍재, 박미경. (2020). 노인의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 : PC와 모바일 기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9(2), 209-241.
이홍재. (2021).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 및 이용의도 영향요인 - 인터넷 비이용 유형에 따른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 17(1), 41-63.
이홍재. (2019).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한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 2차 정보격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8(1), 223-249.
이홍재, 박미경, 한수영. (202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디지털 조력이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7(1): 131-142.

임예직, 문영민. (2021).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신기술 수용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51(51), 239-264.

임예직, 문영민, 이정하. (2022).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 19.1, 71-90.

임정훈, 이혁준, 이지훈. (2020). 장 ·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영향요인: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0(9), 475-485.

장덕현. (2005).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빈곤 양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6(1), 219-236.

장인선, 안충현, 서정일, 이은하, 강완식. (2017). 시각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향상을 위한 해설오디오 수용도 조사 및 분석.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2(2), 214-233.

장창기, 성욱준. (2020).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7(3), 56-81.

장혜림, 김성천. (2015). 발달장애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용능력과 정보만족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27(2), 1-26.

정성학, 강경수, 유승관. (2013). 저소득층의 방송이용 특성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9, 261-297.

최순화. (2022). 코로나19 이후 고령층 디지털 정보 활용 변화의 결정요인. 『인문사회』, 13(2), 981-992.

최순화. (2022). 여성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활용과 삶의 만족도 연구: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경제학회』, 1. 29.2, 91-105.

최아름. (2020). 지능정보사회에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 미래 지능정보기술의 인지와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12), 11-19.

최혜지. (2022). 고령자의 정보화, 실태와 한계. 『월간 복지동향』, 280, 54-59.

한명희. (2023). 코로나19 시대 노인인구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2), 559-567.

황영호. (2016). 정보격차가 장년층의 인터넷기반 사회·경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30(4), 1-19.

황주희. (2019). 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6(3), 53-68

황현정, 황용석. (2017).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 가구구성형태 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4(3), 359-386.

2. 국외문헌

A. Roslan, I. Russayani, & A. Aza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Among Rural Households in Terengganu, Malaysia.

Ana M. Gonz ´alez Ramos & Lidia Arroyo Prieto. (2014). Digital Inclusion of Low-Income Women. Proceedings of the XV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Ana M. Gonz ´alez Ramos and Lidia Arroyo Prieto. (2014). Digital Inclusion of Low-Income Women. Proceedings of the XV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Azaliza Zainal, Nur Farhanum Abdul Aziz, Nahdatul Akma Ahmad, Fariza Hanis Abdul Razak, Fadia Razali, Noor Hidayah Azmi, &

Haily Liduin Koyou. (2023). Usability measures used to enhance user experience in using digital health technology among elderly: a systematic review. Bulletin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cs, 12, pp. 1825－1832.

Aziz Amin, Ahmad Puad Mat Som, & Zainul Zolkifeli. (2018). Social Capital Impact on Quality of Life of Low-Income Population Group.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 Technology, 7, pp. 137.

Blank, G. & Groselj, D. (2014). Dimensions of Internet use: amount, variety, and typ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7(4), 417-435.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Boris Bartikowski, Michel Laroche, Ahmad Jamal, & Zhiyong Yang. (2018). The type-of-internet-access digital divide and the well-being of ethnic minority and majority consumers: A multi-country investig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2, pp. 373－380.

Bum J Kim, Kristen F Linton, & Wesley Lum. (2013).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and Korean elderly immigrants. Journal of Social Work, 15, pp. 87－100.

Bum Jung Kim, Erica Auh, Yeon Jung Lee, & Joonhee Ahn. (2013).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among older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ging & Mental Health, 17, pp. 844－852.

Chang-ho Lee, Sung-kil Min, Woo-taek Jeon, Mika Kigawa, & Michiya Sugawara. (2009).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Japan. Asian Journal of Psychiatry, 2,

pp. 95－99.

Chong-Min Park. (2008). The Quality of Life in South Korea .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 pp. 263－294.

Christopher E. Beaudoin & Esther Thorson. (2004). Social Capital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Testing Differences in Media Effects and Model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 pp. 378－399.

Chen, W. & Wellman, B. (2004). The global digital divide -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IT & Society, 1(7), 39-45.

Choi, N. G. & DiNitto, D. M. (2013). The digital divide among low-income homebound older adults: Internet use patterns, eHealth literacy, and attitudes toward computer/Internet use.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5(5), e93.

Cotten, S. R. Anderson, W. A. & McCullough, B. M. (2013). Impact of internet use on loneliness and contact with others among older adults: Cross-sectional analysi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5(2), e39.

Duk-Byeong Park, Kwang-Woo Lee, Hyun-Suk Choi, & Yooshik Yoon. (2012). Factors influencing social capital in rural tourism communities in South Korea. Tourism Management, 33, pp. 1511－1520.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Erickson, L. B. & O'Brien, C. (2019). The digital divide and social capital: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on trust and network relations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7(3), 389-406.

E. Wang, M. D. Myers, & D. Sundaram. Digital Natives and Digital Immigrants: towards a Model of Digital fluency.

E. Yeon & Hyosik Choi.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Capability,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Multigroup Analysi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Network.

Eric Bidet. (2009). Social Capital & Work Integration of Migrants: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 Asian Perspective, 33, pp. 151-179.

Eunju Yoon & Richard M. Lee. (2010). Importance of social connectedness as a moderator in Korean immigrants' subjective well-being..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 pp. 93-105.

Eun-Young Park & Su-Jung Nam. (2014). An analysis of the digital literac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verification of a moderating effect of gender, education &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8, pp. 404-411.

Gi-Soo Shin, Kap-Chul Cho, Sun-Hee Yang, Og-Cheol Lee, Hee-Chong Baek, Gyu-Young Lee, & Suk-Jeong Lee. (2011).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 pp. 221-232.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Greenwood, DiMaggio, P. & Hargittai, E. (2001).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Studying Internet use as penetration increases. Princeton University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No. 15.

Hampton, K. & Wellman, B. (2003). Neighboring in Netville: How the Internet suppor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in a wired suburb.

City & Community, 2(4), 277-311.

Hargittai, E. & Dobransky, K. (2017). Old dogs, new clicks: Digital inequality in skills and uses among older adult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42(2), 195-212.

Hayat Boz & Sibel Esra Karatas. (2015). A review on internet use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Cyprio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0, pp. 182.

Hongjik Lee.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Socioeconomic and Social Capital Traits.

Houxi Zhou, Xuebiao Zhang, Candi Ge, Jingyi Wang, & Xiaolong Sun. (2023). Does Internet Use Boost the Sustainable Subjective Well-Being of Rural Residents? Evidence from Rural China. Sustainability, 15, pp. 1652.

Hsieh, Rai, & Keil. (2008). Understanding Digital Inequality: Comparing Continued Use Behavioral Models of the Socio-Economically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MIS Quarterly, 32, pp. 97.

Hui Yang, Hongtu Chen, Tianshu Pan, Yiran Lin, Ying Zhang, & Honglin Chen. (2022). Studies on the Digital Inclusion Among Older Adults and the Quality of Life---A Nanjing Example in China.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Hung Sa Lee, Chunmi Kim, & Myung Sook Park. (2015).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6, pp. 268.

Hye-Ryoung Kim, Kasil Oh, Kyong-Ok Oh, Sun-Ock Lee, Sook-Ja Lee, Jeong-Ah Kim, Hoa-Yun Jun, & Jung-Hee Kang. (2008). Quality of Life in Low Income Korean Aged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pp. 694.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Helsper, E. J. (2012). A corresponding fields model for the links between social and digital exclusion. Communication Theory, 22(4), 403-426.

Jaewon Lee & Boyoung Kim. (2021). Social impacts of the continuous usage of digital healthcare service: A case of South Korea. Innovative Marketing, 17, pp. 79-89.

Jakob D. Jensen, Andy J. King, LaShara A. Davis, & Lisa M. Guntzviller. (2010). Utilization of Internet Technology by Low-Income Adul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2, pp. 804-826.

Jihyun Lee, Yui Park, DONGHUN HAN, Ji Won Yoo, Wenlian Zhou, Pearl Kim, & Jay J. Shen. (2020). Education in a new place and social support are needed to improve the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s: A cross-sectional study.

Jihyun Lee, Yui Park, Dong-Hun Han, Ji Won Yoo, Wenlian Zhou, Pearl Kim, and Jay J. Shen. (2021). The association of education in a new society and social support from the education with the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21.

Jiwon Baek, JiYeon Choi, Heejung Kim, Soyun Hong, Yesol Kim, Seongmi Choi, and Eunkyung Kim. (2022). DIGITAL LITERACY AND ASSOCIATED FACTOR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 Innovation in Aging, 6, pp. 587-587.

Ji-yeon Lee, Sang-Soo Shin, & So Hee Lee. (2019). Quality of Life for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The Influence of Physical Health, PTSD, and Social Support. Journal for Social Action in

Counseling & Psychology, 11, pp. 2－13.

Joo-Seong Hwang. (2004). Digital Divide in Internet Use Within the Urban Hierarchy: The Case of South Korea . Urban Geography, 25, pp. 372－389.

Jung Sim Jun, Colleen Galambos, & Kyoung Hag Lee. (202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se,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 Eld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7, pp. 537－552,

Jung Youn Park & Jin Won Kim. (2016).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elf-Rated Health of South Korean Elderly with Disabilities.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31, pp. 498－503.

Jung Youn Park, Ji Young Park, & Soo Hyun Sung.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elf-Rated Health of South Korean Women with Disabilities. Public Health - Emerging and Re-emerging Issues, In Tech.

Jung, J. Qiu, J. L. & Kim, Y. (2001). Internet connectedness and inequality: Beyond the "divide". Communication Research, 28(4), 507-535.

Kardefelt-Winther, D. (2014).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Internet addiction research: Towards a model of compensatory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351-354.

Keisuke Kokubun, Toshimi Ogawa, Ryan Browne, Takamitsu Shinada, Lorenz Granrath, Johanna Moeller, Nhu Tram, Rainer Wieching, & Yasuyuki Taki. (2022). Social Capital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CT Usage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in Japan: Implication for a New Design Paradigm. Sustainability, 14, pp. 4148.

Kim, S. & Kim, H. (2015). The effect of digital divide on social capital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3009-3026.

Kim, Y. & Park, M. (2017). Digital inequality in East Asia: A comparison of Internet penetration rate, information literacy, and digital skills among South Korea, Japan, and Chin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7(6), 598-616.

Kyong Yoon. (2016). Korean Migrants₩textquoteright Use of the Internet in Canada .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8, pp. 547-562.

Kyu Tae Kim. The Mediating Role of Core Competenc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Perceived Employability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Difference by Employment Support Program Participation.

Kyung Hoon Yang, Sei Kwon Park, Seong No Yoon, & Jaekyung Kim. (2010). Measurement of the digital inequality in remote rural areas: case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9, pp. 142.

Kyung Mee Kim & Ju Hee Hwang. (2020).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nline activity use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disability statu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1, pp. 109-119.

Kyunguk Yang & Byoungho Song. A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of Remote Rural Areas and the Policy of Digital Inclusion in Korea.

Lina Shangguan & Xiaoyan Peng. (2021). Impact of Internet use on the income gap among rural residents: A social capital-based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Lee, H. & Park, J. (2016). The role of digital capital in understanding digital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in South Korea.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9(12), 1726-1741.

Lee, S. J. & Cho, B. (2017). The impact of digital media use on adolescent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study of Sou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Youth & Society, 49(6), 717-739.

Lee, Y. J. & Rho, M. J. (2019). Social capital and smartphone app usage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8(3), 412-432.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n Simpson, Leonie Daws, & Leanne Wood. (2003). More Than Just an Internet Connection: Building Rural Social Capital Through Public Access. Rural Society, 13, pp. 113－125.

M Kalashi, S Khodaparast, & V Bakhshalipour.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Inactive Elderly. Journal of Health and Care, 22, pp. 236－244.

Maria Laura Ruiu & Massimo Ragnedda. (2020). Digital capital and online activiti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econd level of digital divide. First Monday.

Martyn Warren. (2007). The digital vicious cycle: Links between social disadvantage and digital exclusion in rural areas . Telecommunications Policy, 31, pp. 374－388.

Michael J. Stern & Alison E. Adams. (2010). Do Rural Residents Really Use the Internet to Build Social Capital?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 pp. 1389－1422.

Min-Ah Lee, Kenneth F. Ferraro, & Giyeon Kim. (2020). Digital technology us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beneficial for those who have fewer social interactions?. Aging & Mental Health, 25, pp. 1839－1847.

Minhae Cho & Kyung Mee Kim. (2021). Exploring the disparity in

tangible outcomes of internet use betwe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 South Korea.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4, pp. 101101.

Minhyang (Mia) Suh & Gary Hsieh. (2018). The "Had Mores": Exploring korean immigrants₩textquoteright information behavior and ICT usage when settl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0, pp. 38-48.

Minhyang (Mia) Suh & Gary Hsieh. (2019). The "Had Mores": Exploring korean immigrants₩textquoteright information behavior and ICT usage when settl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0, pp. 38-48, 2018.Sabina Lissitsa and Svetlana Chachashvili-Bolotin. The effect of digital variables on perceived employability in an ethnic minority and the hegemonic group. Israel Affairs, 25, pp. 1082-1104.

Niehaves, B. & Plattfaut, R. (2014). Internet adoption by the elderly: Employing IS technology acceptance theories for understanding the age-related digital divid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3(6), 708-726.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o-Seong Hwang. (2004). Digital Divide in Internet Use Within the Urban Hierarchy: The Case of South Korea . Urban Geography, 25, pp. 372-389,

Park, S. (2017).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behavior online. Communication Research, 44(2), 171-199

Pénard, T. Poussing, N., & Suire, R. (2013). Does the Internet make people happier?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46, 105-116.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Ragnedda, M. & Muschert, G. W. (Eds.). (2013). The digital divide: The Internet and social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Routledge.

Rainie, L. & Wellman, B. (2012). Networked: The new social operating system. MIT Press.

Robinson, L. Cotten, S. R., Ono, H., Quan-Haase, A., Mesch, G., Chen, W., ... & Stern, M. J. (2015). Digital inequalities and why they matter.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5), 569-582.

Rözer, J. & Volker, B. (2016). Does income inequality have lasting effects on health and trust? Social Science & Medicine, 149, 37-45.

Renaldy Oktavianoor. (2020). Kesenjangan Digital Akibat Kondisi Demografis di Kalangan Masyarakat Rural. Palimpsest: Jurnal Ilmu Informasi dan Perpustakaan, 11, pp. 9－19

Sabina Lissitsa & Svetlana Chachashvili-Bolotin. (2019). The effect of digital variables on perceived employability in an ethnic minority and the hegemonic group. Israel Affairs, 25, pp. 1082－1104.

Sangjo Oh, Joongho Ahn, & Beomsoo Kim. (2003). Adoption of Broadband Internet in Korea: The Role of Experience in Building Attitud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8, pp. 267－280.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한국정보화진흥원 28.4 (2021): 36-53.

Saurabh Nautiyal, Abhishek Shrivastava, Chinmoy Deka, & Praveen Chauhan. (2022). Role of Digital Healthcare in the Well-being of Elderly People: A Systematic Review. Proceedings of the 13th Indian Conference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Selwyn, N. (2004).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s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6(3), 341-362.

Shoujun Lyu & Jian Sun. (2020). Internet use and selfrated health among Chinese older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 21, pp. 34－38.

Siti Noorsuriani Maon, Naffisah Mohd Hassan, Noorain Mohammad Yunus, Sri Fatiany Abdul Kader Jailani, & Nor Azmaniza Azizam. (2021). Digital Behaviour of Rural School Students: Attitudes and Perception of Digital Technologies . Asia Proceedings of Social Sciences, 7, pp. 126－130.

S. Knack & P. (1997). Keefer.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pp. 1251－1288.

S. Min, W. Jeon, & Dong Kee Kim.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Song Yang, S. Kurnia, Heejin Lee, & Seongcheol Kim. The impact of mobile phone use on social capital development: A preliminary study in South Korea.

Soogwan Doh & Roger R Stough. (2010).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CT on the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4, pp. 53－70.

Soondool Chung, Hyeji Choi, & Sophia Seung-yoon Lee. (2013). Measuring Social Capital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Mixed Methods: Application of Factor Analysis and Fuzzy-Set Ideal Type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 pp. 45－64.

Subin Park, Yeeun Lee, & Jin Yong Jun. (2017).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xperiences, self-esteem, negative cognition, and Internet addiction symptoms among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Psychiatry Research, 257, pp. 381－385.

Su-Jung Nam. (2019).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Current Psychology, 40, pp. 4590-4598.

Su-Jung Nam. (2019).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textquoteright use of social media and their quality-of-life. Current Psychology, 40, pp. 4590-4598.

Sun Hee Jang & Nam Joo Je.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loneliness, quality of life,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among the elderly in the age of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AND APPLIED SCIENCES, 9, pp. 71-79.

Sung-Man Bae.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Use Motives and Life Satisfaction for Senior Citizens in Korea.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Sunhee LEE, Kohei MORI, Yasuto IZUMIYAMA, & Masayuki KUMAI. (2013). A Study on the Assignments and Factors Affecting the Qualitative Digital Divid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Human Services, 5, pp. 78-90.

Taeil Kim & Soogwan Doh. (2006). Analysis of the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 .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 pp. 231-261.

Tatiana Karabchuk & Aizhan Shomotova. (2021). Digitization,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globe . First Monday.

Thomas N Friemel. (2014). The digital divide has grown old: Determinants of a digital divide among seniors. New Media & Society, 18, pp. 313-331.

Van Deursen, A. J. & Van Dijk, J. A. (2014). The digital divide shifts to differences in usage. New Media & Society, 16(3), 507-526.

Van Dijk, J. (2005). The deepe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Sage Publications.

Van Dijk, J. A. (2012). The evolution of the digital divide: The digital divide turns to inequality of skills and usage. In J. Bus, M. Crompton, M. Hildebrandt, & G. Metakides (Eds.), Digital Enlightenment Yearbook 2012 (pp. 57-75). IOS Press.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875-901.

Veenhoven, R. (2008). Healthy happiness: Effects of happiness on physical health and the consequences for preventive health ca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3), 449-469.

Warschauer, M. (2003). Technology and social inclusion: Rethinking the digital divide. MIT Press.

W. Jeon, Shi-eun Yu, & J. Eom. A Seven-Year Panel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Life in South Korea.

Woochun Jun. (202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Digital Divide among Older People in Ko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 pp. 3917.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WHOQOL: Measuring quality of life.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healthinfo/survey/whoqol-qualityoflife/en/

Wookjoon Sung. (2016). A study of the digital divide in the current phase of the information age: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s. Information Polity, 21, pp. 291－306.

Woo-Taek Jeon, Jin-Sup Eom, & Sung Kil Min. (2013). A 7-Year Follow-Up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 pp. 158－164.

Xin Chen, Britt¨Ostlund, & Susanne Frennert. (2020). Digital Inclusion or Digital Divide for Older Immigrants? A Scoping Review. Human Aspects of IT for the Aged Population. Technology and Society,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pp. 176－190.

Xinguang Chen, Bin Yu, Jie Gong, Peigang Wang, & Amy L. Elliott. (2017). Social Capital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Mediated by Employment Experiences: Evidence from a Random Sample of Rural-to-Urban Migrants in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9, pp. 327－346.

Yang Yang, Dan Zeng, & Fan Yang. (2022). Internet Us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Based on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 pp. 12087.

Yong-Kyung Lee & Dongmyun Lee. (2003). Broadband access in korea: experience and future perspective .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41, pp. 30－36.

You-min Park. Reassessing Korean IT Policy to Link Rural Online: The Missing Gap of Korean Rural E-Readiness.

Yong-Kyung Lee & Dongmyun Lee. (2003). Broadband access in korea: experience and future perspective .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41, pp.30－36.

Yu Cheung Wong, Chi Kwong Law, John Yat Chu Fung, & Vincent Wan Ping Lee. (2010). Digital divide and social inclusion: policy challenge for social development in Hong Kong and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3, pp. 37-52.

Yumei Zhu, Yifan Zhou, Cuihong Long, & Chengzhi Yi.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China: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Healthcare, 9, pp. 559.

Zhen Liu, Yiming Wei, Qiuming Li, & Jing Lan. (2021).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in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Poverty Reduction an Empirical Study in Urban and Rural China. Land, 10, pp. 634,

Zhizheng Zhang, Wentao Wei, Tianlu Zhu, Ming Zhou, and Yajun Li. (2022). New Dimension on Quality of Life Differences among Older Adults: A Comparative Analysis of Digital Consump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of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 pp. 15203.

Zickuhr, K. & Smith, A. (2012). Digital differences. Pew Internet & AmericanLifeProject. Retrievedfrom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2/04/13/digital-differences/

Zillien, N. & Hargittai, E. (2009). Digital distinction: Status-specific types of Internet usage. Social Science Quarterly, 90(2), 274-291.

ABSTRACT

A Study on the Cross-Validation of Digital Divide in Korea
- Focusing o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

Kim, Ji Jung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ree main research questions. Firs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digital access, digital capability, digital utilization) will affect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digital information gap (digital access, digital capability, digital utilization) will affect social capital. Third, there will b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We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Research Hypothesis 1, "The digital information divide will affect life

satisfaction," is partially accepted. The sub-variables of digital information divide, digital access, digital competence, and digital utilization, were all analyzed to show positive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It was analyzed that digital utilization, digital competence, and digital acc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Hypothesis 2, which states that the digital information divide will affect social capital, is partially accepted, as is hypothesis 1.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igital literacy, digital competence, and digital acc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social capital.

Hypothesis 3,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will be positively related," is accepted. The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was conducted using the digital information gap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hypotheses of this study generally support the main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actor based on digital utiliz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underprivileged; second, the three dimension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actor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diction of the life satisfaction factor of the underprivileged; and third, the three dimension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actor also have a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on the social capital factor. This study found tha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actors of the underprivilege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factors. The analysis also suggests that the digital information gap of the underprivileged based on digital uti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mprovement of life satisfaction of all underprivileged.

【KeyWords】Information Marginalized, Social Capital, Digital Competence, Digital Utilization, Life satisfaction

HANSUNG UNIVERSITY